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지는 것에 너무 슬퍼도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8월 28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공모전'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 사태로 올해 예정됐던 불교계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각종 공모전이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대면형태로 진행되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을 기획하거나, 매년 진행해 온 정기행사 중 공모전만을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불교계 공모전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대중소통 창구는 물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취소돼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전한 대표적인 행사는 연등회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었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지침을 수용해 전격 취소됐다. 다행히 연등회보존위원회

연등회, 음악공모전 첫 시행
나란다축제 · 월정사 백일장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 전환

가 매년 진행해 온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가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출품된 연등을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등 경연대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반 · 어린이 ·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한 연등을 접수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은 연꽃등과 팔모등, 수박등을, 어린이는 팔모등과 수박등을, 대학생은 연꽃등과 전통성을 잘 살린 등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등작품은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되며,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2021년 연등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또 올해 연등회 음악 공모전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개인과 단체별 최대 3곡까지 응모 가능하며 10월 27일~10월 29일 창작곡 데모음원이나 가이드음원,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02)2011-174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도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청소년 등 작품 공모전' 을 열고 출품작을 모집한다. 한국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전통행렬등과 창작행렬등을 주제로, 가로 · 세로 50cm 이내로 제작된 창작등을 사무실로 발송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1월 1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02)723-2571

올해 12회를 맞은 나란다 축제도 공모전 형태로 전환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매년 장학퀴즈, '도전, 범종을 울려라' , 불교교리 경시대회 및 댄스 경연 대회 등 신행축제의 형태로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8 유튜브 공모전 △영화감상문 · 감상평 공모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독후감 공모전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란다 축제를 상징했던 현장 퀴즈대회 등은 볼 수 없게 됐지만 공모전 형태의 비대면 전환을 계기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불교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교계 전반이 위축되긴 했지만, 포교원과 파라미타 등 관련기관과 연대를 통해 종단 포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며 11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천태문화노리' 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 · 청소년 만화공모전을 실시한다. 아동 ·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효의식과 다문화 화합, 환경과 복지 등 주제와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가능하며 10월 30일까지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02)873-3405

천태종 광수사도 11월 12일까지 '제3회 광수문학상 공모전' 응모작품을 접수 중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창작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시 · 산문 분야를 선택해 출품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25일 발표된다. (042)823-0332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도 매년 진행해 온 오대산 전국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공모전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지난 8~9월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 산문과 미술작품을 접수받았으며, 10월 8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結社前夜 팔공산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 80여 동의 텐트가 세워졌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순례단의 숙영 장소다. 21일간 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풍찬노숙을 한다. 결사입재를 앞둔 사전행사를 마치고 취침을 위해 텐트로 들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비장해 보인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난 극복 '500km 자비순례' 첫발 내딛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10월 7일 입재법회 봉행

동참 사부대중 82명 한마음
"코로나19 극복 기원" 발원
하루 30km… 21일의 대장정
진제 종정 예하, 입재 법어도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철저'
결사 대중 마스크 1만장 보시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희 밝히는 서원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10월 7일 입재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매일 30km씩 총 500여 km를 걷는 순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지역을 대표해 대구 동화사부터 서울 봉은사까지 진행된다.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원로의원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등 스님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서는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직접 증명법사로 참여해 법어를 내리고 순례단을 독려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26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사부대중은 생사의발을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는 무엇이었는가는 화두를 안고 정진해달라"며 "신심을 갖고 용맹정진 하는 이만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 자비순례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이 일거수 일투족에 화두가 가득하길 바란다. 깨달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입재식에서는 사부대중을 대표해 비구 우봉 스님, 비구니 유승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윤정은 대불련 회장의 고불문 낭독이 이어졌다.

결사 대중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며 국난극복을 강조했다.

500km 순례의 원만회향을 당부하는 사부대중의 기원도 이어졌다. 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장정을 시작하는 자비순례는 21일 동안 500km 걷는 국민정진이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에 나선 순례대중에 감사를 드린다"며 "만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1일간 매일 30km를 걷는 것은 신심과 원력 그 자체다. 이런 원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은 "팔공영산에 시공을 초월하여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이 시연된듯하다.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두타행으로 성불하셨다. 두타 만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식에서는 20여 교구본사가 만행결사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결사대중은 동화사 측에 마스크 1만장을 보시했다.

이후 결사대중들은 조별로 거리를 두고 동화사 일주문을 거쳐 백암삼거리와 지묘동, 강변리틀야구장까지 총 20km의 첫날 순례를 진행했다. 결사대중은 묵언속에서 동화사 산문을 나섰다. 태화산 순례와 달리 이번 순례에서 대중들은 모두 '자비순례' 가 새겨진 모자를 썼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순례 행렬간 거리를 두고 진행됐다.

대구 동화사가 위치한 팔공산 중턱에서 첫 숙영지가 위치한 금호강변까지 결사대중이 거쳐간 20여 km 길마다 국난극복의 희망이 싹텄다.

순례를 지켜본 대구시민 김형종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백km를 걷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존경심이 우러러 나온다"며 "부디 만행결사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노덕현 기자

〈관련 특집 2 · 3면〉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경선

범어사 사부대중 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국민희망, 불교미래 典範 '자비순례'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자비순례 법어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
臨危不變是丈夫(임위불변시장부)
기틀에 다다른 일구는 천고에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당하여 변치 아니함은
이것을 방부라 칭(稱)함이라.
기틀에 합당한 일구(一句)는 종사가(宗師家)의 안목(眼目)을 갖춘 이라야,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염출한다.
종사가들이 상봉(相逢)하여 진리의 세계를 거량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와 일거일동은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빠르고 밝은 눈을 갖추신 분이야말로 천고(千古)에 선지식이 됨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신(誕辰)하시고 길에서 대오견성 하시고 길에서 설법(說法)하시다가 길에서 열반(涅槃)에 드셨습니다.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現前)함이라.
이에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생사를 요달(了達)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진하기 바라노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혼신(渾身)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됨이라.
이때는 사물을 보아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상태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 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땅에 이르게 되고, 천 칠백 공안이 한 꼬챙이에 다 꿰어버리게 되어, 누가 어떤 법문을 물어와도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는 법이로다.
이것이 호왈(號曰) 대오(大悟)견성(見性)이고, 확철대오(廓撤大悟)이니,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친견하여 바르게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함이라.
〈중략〉
향상(向上)이 일로(一路)를 알아야만 당기일구(當機一句)의 기틀을 갖추어 천불만조사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금일 3 · 7일 노상에서 씨름하는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보고 또 보라!

테마로 본 만행결사 자비순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7일 입재하여 27일 회향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는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또 선보일 예정이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열리는 순례인 만큼 국민들에게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결사대중이 10월 7일 순례의 첫발을 디뎠다. 애가사를 수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통일하여 착용한 스님들이 눈길을 끈다. 사진=박재완 기자

THEME 1 코로나 방역 철저

자비순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청규 및 생활수칙 하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발생을 막기 위해 순례하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걷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아침 출발 전과 점심공양, 저녁 도착 후 총 3차례 걸쳐 발열체크를 하고 각각의 온도를 기재하기로 했다. 체온 기준도 37.5도인 정부방역 지침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37도 이상시 의료팀이 즉각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행선 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텐트를 사용한다. 이들 텐트는 매일 소독이 진행된다. 또 대중운집을 막기 위해 공양도 도시락으로 해결키로 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은 "7대 수칙을 정함으로써 대중 모임 중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지키기로 했다. 순례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전범을 보이기 위해 더욱 수칙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THEME 2 복장 · 행동수칙 통일

불교 중흥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복장과 행동 등도 수칙을 정해 통일했다. 자비순례는 새벽 3시 30분 기상하고 9시 취침하는 일과를 정하고 행선 출발과 회향은 죽비 3타 신호로, 순례에서는 '자비순례' 문구가 새겨진 모자만 착용함을 수칙으로 지킨다. 청규에서는 행선시 묵언을 기본으로 스님들은 승복과 대가사를 수하도록 했으며, 휴식시에는 낮은 소리로만 대화하고 제공받은 공양물을 남기지 말도록 했다.

순례가 걷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닌 수행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행선시에는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108염주를 수지, 염불 등 각자의 수행도 진행하게 했다.

THEME 3 500km 장정 특별운영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숙영지와 순례코스가 일정했던 태화산 예비순례와 달리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대구부터 서울까지 500여 km의 대장정인 만큼 순례를 지원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결사대중은 순례단과 지원단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공주 태화산 순례때보다 많은 82명이 신청하여 비구스님 4개조, 비구니스님과 우바이, 우바새 각 1개조씩 7개 조로 이뤄졌다. 지원단은 공양팀, 운영팀, 상황팀, 자원봉사팀, 의료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텐트에서의 장기간 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국대 의료원에서 4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의료팀을 구성해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THEME 4 지역사찰과 사회 참여

불자들의 기도정진이 함께 이뤄졌던 천막결사와 같이 이번 자비순례에도 지역사찰과 지역민들의 일일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첫날에도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나경원 前 국회의원 등의 일일참여가 진행됐다.

도시락 공양의 경우 각 순례지마다 사찰들의 보시가 이어지고 있다. 첫날 순례에서도 대구 보현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사찰들이 뜻을 모았다. 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 구미지역민들이 순례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동참도 이어질 전망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순례의 정진은 곧 수행이며, 이번 자비순례는 특히 행선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다. 수행 진작을 통한 불교 중흥 주춧돌이 되도록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비순례 사부대중 인터뷰

"국민 불교호감 높이는 기회로"

진오 스님



자비의 마라토너로 유명한 진오 스님은 이번 자비순례 전체일정에 참여한다. 스님은 이번 걷기가 마라톤과 달리 대중이 함께할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이란 결국 대중과 소통하며 회향하는 데서 의미를 지닌다"며 "마라톤을 할 때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었지만 걷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 특히 스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하나의 수행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 내적으로 행선이 하나의 수행법이 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불우이웃을 위한 마라톤처럼 이번 자비순례도 보다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 이번 자비순례는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호감도를 높일 좋은 기회"라고 기대를 밝혔다.

"간절함 만큼 중흥 이뤄질 것"

묘수 스님



남양주 봉선사에서 온 묘수 스님은 이번 순례에 도반 스님 3명과 함께 참여했다. 태화산 순례에서부터 도반모임을 구성해 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은 "다큐 '아홉스님' 을 보면서 스님들 사이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었다. 승가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수행도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의무감과 원력이 생겨났다"며 "그런 마음에서 스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도만행결사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스님은 "인도만행은 스님이라면 한번은 해봐야 할 정진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가지 못하는 만큼 간절함은 더 커질 것"이라며 "순수하게 정진하는 불자들의 이런 마음이 국민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는 결국 수행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한다"며 밝게 웃었다.

"결사 완성에 마음 모아달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천막결사 재가자 일일수행부터 봉은사 새벽정진에 이어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까지 참여하고 있다. 대학 총장으로 업무로 인해 21일 전체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틈이 날때마다 순례에 동참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첫 순례를 마치고 "자승 前 총무원장 스님 이하 대중들이 꼭 마지막까지 성료하여 결사정신을 널리 알리길 간절히 바란다"며 "또 이런 결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결사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결사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함께 해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순례에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고무적이다"며 "동국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동참하는 사부대중들이 마지막까지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불자들 동참에 기뻐"

윤정은 대불련 회장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직접 해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봉은사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된 새벽정진부터 순례에 동참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걷는 것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윤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 해 뜨기 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며 걷는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면 하나의 수행이 되고 생활의 나침반이 된다"며 "여기에 이번 순례에는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같이 걷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순례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한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1990년 3월 법형제회 발족에 즈음하여 대행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형제회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TEL. 010-5250-7040

21일간의 국난극복 순례 함께해요

5일차 신라불교 초전지 구미 불교문화체험



5일차인 10월 11일은 구미에 위치한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숙영한다. 신라불교 초전지는 아도화상에 의해 신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한국불교 성지로 구미시에서 불교문화체험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구미 지역민들과 함께 아도화상을 기리는 참배와 신라불교 전래의 역사를 되새긴다.

6일차 낙단보 마애불 법회 상주 순례



6일차인 10월 12일은 4대강 사업 당시 폐불 위기에 처했던 낙단보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진행한다. 낙단보 마애불은 2010년 4대강 상주 낙단보 공사 당시 발견된 마애불로 당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마애불 수호 운동을 벌여 이를 지켜냈다. 현재 마애불 인근에는 관리사찰인 마애사가 건립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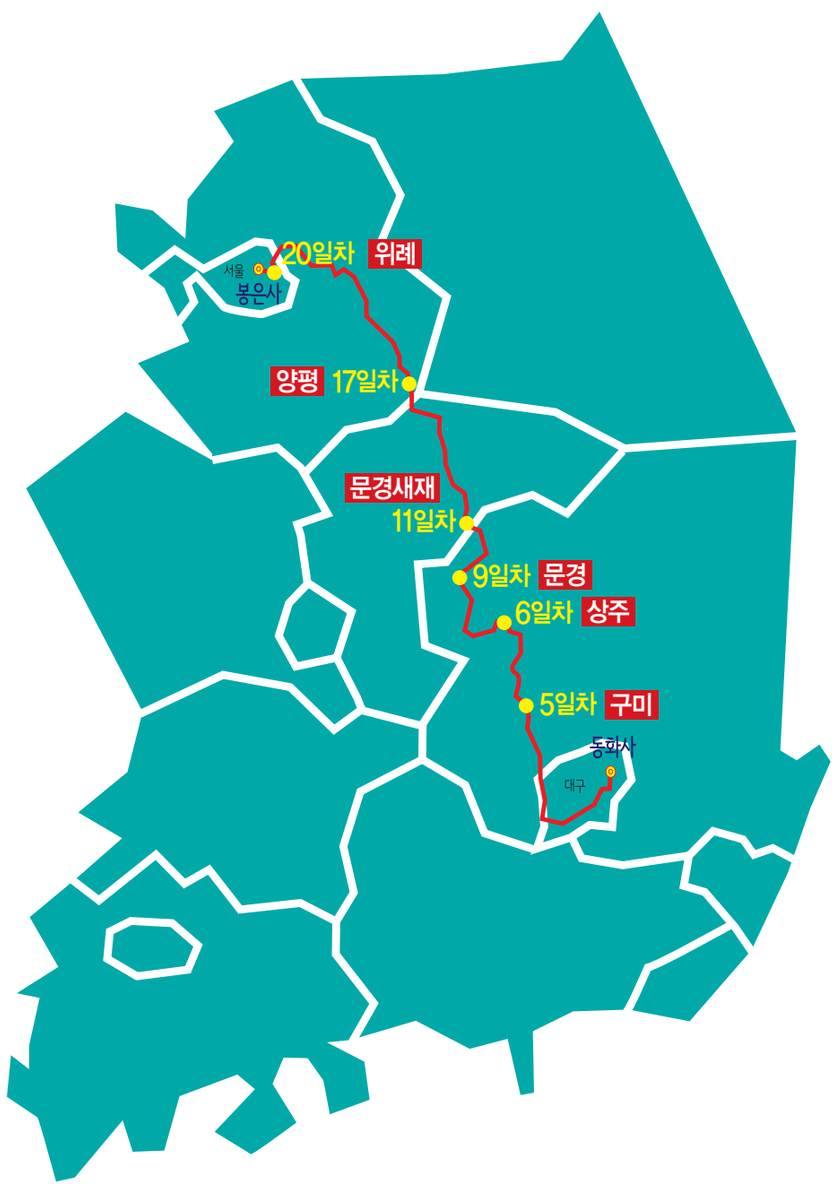
9일차 결사정신 고찰하는 대중공사

9일차인 10월 15일 순례단은 이번 순례 중 가장 고된 문경새재를 넘는 17일을 앞두고 STX리조트에서 잠시 정비시간을 갖는다. 여기서는 결사의 의미를 되짚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불교 결사의 역사와 자비순례를 비롯한 상월선원 결사를 이후 어떻게 대중에게 회향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리보는 자비순례 주요일정 (10월 8일 기준)

21일간 자비순례 순례단이 걷는 길은 대구 동화사부터 서울 봉은사까지 총 501km에 달한다. 이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걷는 순례길 중 주요 지점을 소개한다. 독자들도 지면을 통해 자비순례에 동참해 보자. 〈편집자 주〉



11일차 선지식 전법길 되짚는 문경새재 순례



11일차인 10월 17일 순례단은 해발 548m인 문경새재 이화령 고개를 넘는다. 이날 걷는 오르막길은 순례단이 걷는 전체일정 중 가장 길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선지식들이 전법을 위해 어떤 고난을 감내했는지 직접 체험할 것이다. 이날은 동국대 의료원 등에서 의료진과 물리치료사 등이 대기해 순례단의 치료를 담당한다.

17일차 한국불교 과제 짚는 양평서 대중공사



17일차인 10월 23일에는 정비를 위해 숙영하는 소노문리조트 양평에서 두 번째 대중공사가 진행된다. 두 번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회로 이어진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8일차인 24일 양서면까지는 철야순례가 진행된다.

20일차 결사정신 결집 위례 상월선원 순례

20일차인 10월 26일 순례단은 동안거 천막결사가 펼쳐졌던 위례 상월선원을 찾는다. 상월선원에선 야단법석이 열려 대중들의 결사정신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20일간 순례에 지친 순례단을 격려하는 불자대중들의 발걸음이 예상된다. 이어 21일차인 27일에는 봉은사에서 자비순례 회향식이 거행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고불문



시방삼세에 두루하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오늘 도량에는 불법 아래 진중한 인연이 조화롭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으로 일심을 이루었으니, 거룩한 부처님께 고하여 올리는 마음 또한 청정합니다.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선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얻겠습니다.

근래에 수많은 생명은 고통에 쌓이고 세상은 어지럽기에 첫 걸음을 나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지만,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는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향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이미 정토인 곳에서는 예경을 올리고, 이제 정토가 되어야 할 곳에서는 오늘의 정진을 기꺼이 나누어 보답하겠나이다.
지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열정과 성원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실천이 얼마나 가슴깊이 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은 여전히 뜨겁고 생생합니다. 수행의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화답해 오는 길임을 저희들은 이번 만행결사의 한걸음 한걸음에서도 알아가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종단의 중흥이 사회의 평온으로 나아가기를 동참 대중 모두 부처님께 고하오니 섭수하시어 곧고 너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10·27 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 10·27법난 희생자 천도재
10월 27일(화) 오전 11:00~12:00 조계사 마당

● 10·27법난 40주년 특별전시회
10월 21일(수) ~ 29일(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본 행사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로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2-2011-1829(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스트 코로나, 불교 어떻게 변화할까

동국대 종학硏, '포스트 코로나' 주제 학술대회

'코로나' 관련 첫 불교계 학술행사
정운 스님, 유튜브 모범사례 분석
"시대 맞는 行法 개발해야" 강조
인경 스님 "구도형 종교 나아가야"
새로운 영성 운동 적극 수용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됐고, 이로 인한 경제·산업·문화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대면하며 기도하던 기존의 종교의례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예배로 대체할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1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라는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만해관서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교 포교와 종교, 환경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제언 등을 담은 논문들이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발표 논문 '포스트 코로나, 불교 포교의 변환에 대한 소고'를 통해 불교 포교와 신행이 시대에 맞게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시작된 유튜브 온라인 법회와 강좌들을 주목한 정운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불교가 부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신행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불교 유튜브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정운 스님이 꼽은 유튜브 모범 사례는 △서울 봉은사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고양 흥국사 △대구 대관음사 △오대산 사자암 △무여 스님 △원용 스님 △조계사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으로, 대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형 법회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었다. 연간 회원제 기도와 유튜브 멤버십을 활용하는 사찰도 있었다.



인경 스님 정운 스님 이병인 교수

시대에 맞는 불교의 행법(行法)을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스님은 △시대 코드에 맞는 현대적인 다르마 개발 △염불의 현대화 △간경·불서와의 만남 △기존 법회 형식 탈피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 스님은 "단순히 법석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법을 전달하는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특정한 법회를 제외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고, 찬불가를 부르는 콘서트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사찰은 멤버십 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고, 불자들은 사찰과 늘 연계된다는 연대감을 얻게 된다"며 "어려운 고비는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를 기회삼아 '불교 르네상스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발표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종교들의 사회 참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인경 스님은 종교의 형태를 기도형과 구도형으로 구분했다. 스님에 따르면 기독교와 같이 절대자를 상정하고 이를 경배하는 의례를 진행하는 종교는 '기도형'이며, 내면의 진리를 찾고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종교는 '구도형'이다. 인경 스님은 앞으로의 종교가 '구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인경 스님은 "종교의 본질은 명상과 힐링, 곧 영적 깨달음의 체험과 개인·사회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다. 오랜 시절부터 종교는 세상에 대해 성찰과 치유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역할에 대해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후 기존 종교는 새로운 영성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을 통해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전통을 되살리는 '청정성 회복운동'을 일으킬 것을 주장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발표자와 논평자만 현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청중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웹액스(Webex)로 접속해 미팅번호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종학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학술대회 자료집도 사전 발송되므로 연구소 메일(jonghak@dongguk.edu)로 자료집 수령 주소를 발송해야 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사회적 변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불교계에서 개최하는 선제적인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가불자 본분 다하는 신도회 만들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6·27대 회장 이·취임법회

"승보공양은 재가 불자 의무
행복바라미 사업 계승·발전"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가슴 속에 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대 회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6·27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웅전 법당에는 50명만 참석했으며, 초과 인원은 외부에 마련된 좌석에서 중앙신도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재가불자들 각자 자리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현대사회는 극심한 경쟁으로 정신적 고통은 심화되고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류는 새로운 고통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이 시기에 신임 회장 덕산 주윤식 거사가 깊은 신심과 넓은 원력으로 전국 신도들을 일심으로 단합시켜 부처님 법에 따라 삼보를 외호하고 수분수력(隨分隨力)으로 정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주윤식 신임 회장은 그동안 교구신도회와 지역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신심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큰 역량을 발휘해 중임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종단은 언제나 신도회가 조계종 신도대의기구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격려사에서 "오늘 취임하는 주윤식 회장은 제8교구신도회장으로 다져온 '승보공양'의 원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신행운동을 펼쳐달라"고 기대했다.

새로 취임한 주윤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대 회장단의 업적과 사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재가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한 주윤식 회장이 중앙신도회기를 이양받고 있다.

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나눔문화의 확산이라는 현재의 가치를 넘어 불교문화의 진흥·불교 인재의 발굴과 육성·불교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을 찾아 그들의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 서겠다. 또한 결집된 역량을 기반으로 '함께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법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윤식 회장은 행복바라미 사업의 발전과 함께 승보공양 등 신규 사업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승보공양 사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주윤식 회장은 제8교구신도회장을 역임하며, 매일 100원 씩 기부하는 '승보공양' 사업을 전개해 교구 승려 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한 첫 해 1억 2000여 만원을 모연했고, 3년 차에는 2억원을 모연하는 성과를 보였다.

주윤식 회장은 "큰 돈은 부자 한 명이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다. 매일 100원 씩 승보공양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스스로의 원력을 다지고, 스님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승보공양은 재가자의 의무다. 재가불자의 본분사에 최선을 다할 때 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수시모집 비대면으로 '성공'

동국대 서울캠 19.91·경주캠 4.22 경쟁률

종립대학들이 비대면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학 입학모집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동국대는 9월 28일 오후 5시 마감된 서울캠퍼스의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종 경쟁률이 19.91대 1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총 2049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에 4만786명이 지원, 최종 1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의 지난해 수시 지원은 20.56대 1이며, 2019년 수시지원은 18.01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지원자가 10.1% 감소하는 등 대학입학 지원자들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비대면 방식을 전격 도입한 실기전형 세부전형별 경쟁률은 △연극학부 72.50대 1 △영화영상학과 85.25대 1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가 57.52대 1 등을 기록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1천454명 모집에 6천136명이 지원해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5대 1의 경쟁률이었다.

동국대의 경우 올해 수시모집은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기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류전형에서 평가산정 기한도 대폭 넓혔다. 면접과 실기 전형은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호월서재단, 지역 위한 자비나눔 잇달아

추석 앞두고 마포구 성금 전달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9월 28일 서울 공덕동주민센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마포구청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법주사 조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호월서희망재단은 국내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매월 2차례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미얀마 쉐띳마을 중학교에 장학금과 지원금 1만달러를 보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 센터' 완공

10월 1일 양곤 지역에 건립
미얀마 사업 10년만에 결실
현지인 부지 기부로 본격화
두부공장 입점…883㎡ 규모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미얀마 지부가 양곤 지역에 센터를 완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밀착적인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미얀마센터 건립은 로터스월드가 미얀마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한지 꼭 10년만의 결실일 뿐 아니라, 해당 부지를 미얀마 현지인이 기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로터스월드는 최근 "지난 10월 1일 양곤 노스다공 지역에 미얀마 지부 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883㎡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진행한지 10개월 만인 10월 1일 최종적으로 완공됐다. 1층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설립,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두부공장과 교육장, 2층은 지부 사무실과 미팅룸, 교육장, 3층·4층은 게스트룸과 직원 숙소 등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가 양곤 지역에 센터를 완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밀착적인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사진은 새롭게 건립된 미얀마센터. 사진제공=로터스월드

해당 센터 건립이 미얀마 현지인의 부지 기부로 본격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지부 설립 10주년을 맞아 미얀마 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미얀마 현지인이 필요한 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 기부자는 2018년 양곤 지역내 자야스웨따웅 학교 신축지원과 식수상황이 열악한 미얀마 내 학교 등에 정수시설조성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온 로터스월드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센터는 그동안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진행해 온 교육환경개선사업(학교 및 도서관 신축), 위생환경개선사업(정수시설 조성)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미얀미 지부는 지난 10년간 사업규모가 매년 확대돼 왔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 두부공장의 경우 그 위치가 지부사무실과 멀어, 관리와 운영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번 지부 센터 신축을 통해 지부사무실과 사회적 기업인 두부공장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 재고와 기업 운영 확장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새롭게 설치된 교육장은 향후 미얀마 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한국어·영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기업 두부공장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농촌출신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기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숙소시설도 마련됐다.

센터가 건립된 노스다공(North Dagon)지역은 로터스월드 사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도 갖췄다. 로터스월드 측은 해당 지역이 학교환경개선사업과 정수시설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바고(Bago) 지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얀마 정부청사가 위치한 수도 네피도(Nay pyi taw)와의 접근성도 높아 내무부에 대한 사업보고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는 "이번 센터 준공을 계기로 미얀마 사회의 책임있는 국제NGO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얀마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세대공감 이끄는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10월 21~24일 서울극장 등
국내외 작품 55편 상영예정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세대간 소통을 이끌어온 서울노인영화제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극장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희유)는 10월 7일 서울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노인영화제 일정과 상영작 등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영화제의 콘셉트인 '사이공간(In Between)'은 사람, 사이, 공간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서울노인영화제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 상영 프로그램은 국내 경쟁부분 본선 진출작 36편과 해외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19편을 비롯해 도슨트 초이스, 국내특별장편, SISFF Coup De Coeur, SISFF 시선, Know-ing 섹션: 물결너머로부터, 특별섹션: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으로 구성했다. 10월 21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으로 엘리야 술라이만이 연출한 〈머스트 비 헤븐(It Must be heaven)〉을 상영한다.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 언택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소통으로 이어가는 것)'를 추구하는 이번 영화제는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좌석 간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사전예매를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

공장지대 한복판서 피워낸 포교 원력

김해 불인사, 10월 중 이전불사 회향

8년만에 포교 대표도량으로
교육 · 어린이 포교에도 진력
명상 등 문화포교 활성화도
"포교의 새 역사 쓸 것" 각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으로 성장한 사찰이 있어 주목된다. 성공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입지와 주변 환경이 포교에 적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리적 악조건을 극복해 포교의 꽃을 피운 김해 불인사가 그 주인공. 불인사가 최근 도량 불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는 10월 5일 "도량 이전을 위한 불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새로운 도량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량 이전을 계기로 새 포교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송산 스님은 "불인사는 소그룹으로 가족이 된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 일군 도량"이라며 "새로운 도량에서 문화포교 및 명상 등으로 모두를 위한 사찰로 성장하고 포교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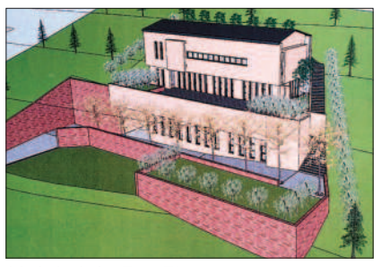
처음 산문을 열었던 8년 전만해도 불인사를 바라보는 지역불교계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불사는커녕 신도조차 모으지 못할 것이란 우려였다. 무엇보다 장소가 문제였다. 불인사는 공장지대 한복판, 사찰이 있을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음먹고 사찰을 참배하려해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곳에, 주변은 대부분 판넬로 조립된 공장건물이며 일반 주거지는 전혀 없고 공장지대를 지나면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불인사는 정기적으로 신행생활을 하는 신도만 200명이 넘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 · 어린이법회에도 40여 명이 등록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불인사가 공장건물만 가득한 곳에서 청아한 기도 소리로 불사를 일으킨 이례적 사찰로 주목받는 이유다.


불인사가 도량 불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이전할 계획이다. 주지 송산 스님은 "새로운 도량에서 새 포교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례적인 성공 이면에는 주지 송산 스님의 남다른 포교원력이 있었다. 송산 스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열린 도량을 발원했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마주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야말로 '무경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 스님의 '무경계' 철학이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음보살님은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겐 부처님의 몸으로 나투시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 할 이에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나투시듯 그렇게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인사 이전도량 조감도.

송산 스님의 노력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가족들이 많아졌고 이혼 위기나 가정불화 등 속사정까지 상담하는 신도들도 적지 않았다. 스님은 "아기가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뛰어라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 높에 맞춰 설명하면서 궁극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친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설명하기 위해 기다렸고 가르쳤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소그룹도 구성했다. 현재 불인사에는 20여 개의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10여 명이 활동하며 사진부, 중창단, 염색반, 청년 선우회까지 다양하다.

송산 스님은 "포교하기에 힘든 장소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일궈낸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불사한 도량도 모든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건립된 불인사는 김해 주촌면 내삼리에 위치한다. 총 2동으로 법당과 명상센터로 나뉜다. 법당은 1층 카페와 갤러리, 종무소가 위치하며 2층은 지대방 3층은 법당이다. 또 다른 한 동은 관(觀)을 의미하는 '봄' 명상센터이다. 총 3층으로 1층은 명상센터 2, 3층은 원룸형 기도방으로 구성된다. 불사 중인 불인사는 대지면적 총 1650㎡(500여 평), 연면적은 1006.5㎡(305여 평) 규모로 현대식 건물이다.

불인사는 도량 불사 회향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체 행사를 생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교대학, 진심직설, 명상 수업을 시작으로 이전 개소를 알릴 방침이다.

20년 간 이어온 '해인사 1029 천도법회' 회향

'총 7203일' 7차 걸친 천도법회
10월 5일 고불암서 8차 입재

20년 동안 이어온 '해인사 1029 천도법회'가 7차 회향을 맞았다. 해인사 천도법회는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봉행하는 해인사 대표 법회 중 하나이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9월 28일 대적광전 및 경내 일대에서 '해인사 1029 천도법회'를 회향했다.

법회는 지난 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회향사, 감사패 전달, 음성공양, 한글 아미타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다.

해인사 천도법회는 돌아가신 부모와 인연 있는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하는 법회이자 대중들을 대상으로 화엄경 입법계품 보현행원을 강조하고 독경, 사경, 불우이웃돕기 등 보살행으로 이끈 법회이다.


해인사는 9월 28일 대적광전 및 경내 일대에서 '해인사 1029 천도법회'를 회향했다.

법회는 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해인사 주지였을 당시 원력을 세워 시작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1천 29일 동안 7차에 걸쳐 진행한 대작불사이다. 일 년 동안 참석한 인원만 총 2만7천 921명으로 집계됐다.

주지 현응 스님은 "해인사 천도법회는 한국불교 초유의 위대한 대장정 법회였다"며 "대한민국이 태평하여 남북 통일과 화합, 번영을 이루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종식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회향법어에서 "천도재는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효에 대한 마음과 윤회 사상을 담고 있다"며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중생을 위해 이익을 끼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향이라는 말은 반환점이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며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8차 천도법회는 10월 5일 해인사 고불암에서 입재한다.

한편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원학)은 10월 6일~11월 1일 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심천 최종국 초대전 '수묵화 산문에 들다'를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도 녹색사찰운동 동참

고창 선운사, 10월 8일 협약
불교환경연대 17호 연대사찰
본사 중 첫 사례…정착 앞장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와 고창 선운사는 10월 8일 선운사 향운전에서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녹색사찰운동 협약식 <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소임자 스님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한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는 수행과 문화, 복지와 나눔공동체로서 녹색사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생명존중 사상을 적극 실천해 교구말사와 불자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해 준 경우 스님과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녹색사찰운동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즐기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유정길 운영위원장의 녹색불교운동의 의미와 실천방법 설명에 이어 협약서 서명, 녹색사찰 명패 전달,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선운사는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선운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 그릇 실천운동, 기후행동의 주체로 나서기, 녹색사찰문화가 확산되도록 법회와 교육을 통한 캠페인 진행 등 녹색사찰운동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도사 개산 1375주년 문화행사 봉행

10월 25일 개산법요식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것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9월 26일~10월 29일 경내에서 '제1375주년 개산대재 ·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진행한다.

통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가족 단위로 방문해 체험 및 전시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통도사는 우선 경내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컬러링 작품과 108 퍼즐, 컬러링북 등을 배부, 전시한다. 아울러 경내 곳곳을 가을 국화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하고 도자기 전시 및 '나도 작가다' 전시도 진행한다. 아울러 괘불탱화 특별전과 자장율사 가사 배견도 진행된다.

개산대재의 중요 일정인 법회 의식 및 법요식은 10월 24일~25일에 진행된다.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부도원에서 대웅전 앞마당 괘불대까지 영축삼보 이운행렬이 이어지며 헌공의식이 봉행된다. 오후 1시에는 무풍한송로 송수정 무대에서 영축문화공연이 개최되며, 2시에는 문화학술 세미나가 해장보각에서 마련된다.


통도사는 9월 26일~10월 29일 경내에서 '제1375주년 개산대재 ·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산대재 현장.

25일은 오전 10시 해장보각에서 영고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정신을 되새기며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한다. 오후 2시에는 역대 고승들의 부도에 헌다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통도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된 규모와 비대면으로 조용히 진행되지만 방문하는 불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산사에서 여유를 찾고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시불교聯, 산해원문화상 후보 모집

지역 예술인과 언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산해원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0월 31일까지 제30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며, 후보 자격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이다. 당해 연도의 활동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종교와는 무관하게 심사한다. 신청은 메일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드 창원에서 열린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교정聯, 9월 25일 교도소에 명절음식 전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과 교정협의회원들은 추석을 앞둔 9월 25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1400명 분의 모시송편과 컵라면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소자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교정협의회에서 사랑의 송편과 컵라면을 전달하게 됐다"며 "재소자들이 자아반성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묵 전주교도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재소자들이 8개월간 답답하고 우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며 "교정위원들께서 추석을 맞아 송편과 컵라면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정협의회 고문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주지)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정위원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활동으로 교정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주교도소 교화위원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현진 스님, 행담 스님, 명각 스님, 명현 스님, 마이산 탑사 탑밴드 단원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견인할 회관 건립에 정성 답지

광주불교聯, 9월 28일
건립기금 전달식 진행

광주지역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자 광주불교의 구심점이 될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불사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9월 28일 무등산 미륵사에서 진행된 77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광주전남전통문화명상치유센터(이하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소원정사 금강회(회장 백남송)가 1290만원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1108만원을, 광주 서구청 불자회(회장 손회숙)가 129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명상치유센터는 광주불교회관 역할을 할 광주지역 불교계의 연합공간으로, 미래 광주와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역 불교인재의 양성, 불교단체의 활성화, 사찰 교육문화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1000일 기도와 발대식 등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식적인 출범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소원정사 금강회 회장 백남송 회장과 동현 스님, 불교회관기획단장 도계 스님.

이날 전달식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다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광주불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는 만큼 건립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백남송 소원정사 금강회장은 "오늘 전달한 기금은 더운 여름날 25명의 회원들이 매주 화, 목요일 저녁에 모여 100일간의 기도 정진을 하면서 모은 것"이라며 "회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1만원씩 보시한 정성이 모인만큼 불사에 잘 쓰여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재창립한 서구청 불자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회원 12명이 129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5일~11일 '제2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현불 논단

잊혀진다는 건 쓸쓸하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부모님 연로해 증조부묘 납골키로
속가 형제와 선산 · 토지 처분 결정
자랐던 고향의 흔적 사라짐 '섭섭'

〈열반경〉 자주 나오는 '靈地' 용어
부처님, 영지에 주로 머물며 포교

영지는 고향이자 역사이며 집이다
아파트가 고향이 되어버린 시대에
다음세대는 어떤 영지서 번영할까

올해 초에 조상님의 납골 관계로 작은 형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산소를 오르는 산길이 거칠고 험해서 앞으로는 증조부모님의 묘를 돌보기 어려우니 화장을 해서 납골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시골의 산과 토지들도 처분 가능한 것은 처분해서 정리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마음 한 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고 자라온 고향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구나' 라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지만, 현실은 또한 현실인 것. 가족들 중에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면서 지킬 사람도 없고 맡길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이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몇 년 전 인근에서 상당한 부농이었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이며 농지와 주택, 조상의 묘소들이 있었다. 자녀들은 다들 총명해서 대학 공부를 마쳤고 외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남겨진 부인은 치매로 시골에서 혼자 살 수가 없었다. 그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했고, 결국 어머니를 자녀들 중 한 명이 모시기로 하고, 그 토지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지역에서 제법 단단한 기반을 가졌던 한 가문이 한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과 그들 자녀들에게 토지와 역사로 전승되어 온 조상과 고향은 기억에서조차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열반경〉을 읽다보면 '영지(靈地)'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밧지족의 영지, 베살리의 영지들, 보가나가라의 영지 등 부처님께서는 영지에서 주로 머물며 지내신다. 부처님께서 거쳐 가는 마을 이름들도 여러 곳이 나열된다. 베살리, 반다 마을, 핫티 마을, 암바 마을, 잠부 마을, 보가 나가라 등 당신이 이전에 지내셨던 기억들과 마지막 발길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있다.

'아난다여! 베살리 마을은 좋은 곳이다. 우데나 영지는 좋은 곳이다. 고타마카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삿탄바 영지는 좋은 곳이다.'

영지는 신불(神佛)의 영검이 있는 신령스러운 땅이라는 뜻이다.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조상신과 토지신, 산신 등의 신령과 불보살님과 같은 성현들께서 머물고 지내신 땅이 바로 영지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영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밧지 족이 그들의 성 안팎에 있는 밧지 족의 영지를 경애, 존중, 숭배하고 공양하며, 아끼고 봉납 드리는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지나치셨던 그 마을과 영지의 이름들이 아직도 분명하고 〈열반경〉을 읽는 불자들의 가슴에 선명한 영상으로 떠오른다. 영지는 고향이다. 조상의 혼이 서려있고 그 역사가 녹아있는 마을이며, 토지이며, 무덤이며, 집이다.

우리 세대까지는 아쉽지만 조상이 살아온 마을이름과 토지를 지켰으며 그 조상의 역사와 흔적을 안고 살아왔다. 그 힘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세대는 어떠할까! 산부인과를 고향으로 알고 아파트 동과 호를 마을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어떤 영지에 의지해서 쇠망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을까?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환자가 준 목탁과 요령

내가 사용하는 요령과 목탁은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한 보살님의 사연을 담고 있다. 한 병실에서 불자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반갑게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분이었다. "저도 불자입니다. 스님"하며 합장한다. 나는 잠깐 '내가 불자 환자 명단을 잘못 보았나보다' 하는 생각에 당황하며 "아 그래요? 불자인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라고 합장하며 다가갔다. 불자님은 신심있게 다니던 사찰의 이야기를 하며 기뻐하였다. 그렇게 잠시 얘기한 후 관세음보살 정근도 한 후 기도로써 마무리 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봉사자실에 들러 환자명단을 열람하는데 그 환우분의 종교가 기독교로 표기 되어 있었다. '아 뭔가 착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환자분이 계신 병실로 갔다. 환자분은 반기는 빛이 역력하면서도 전 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옆에는 보살님과 많이 닮은 따님이 있었다. 나를 보지도 않았다. 보살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몸은 어떠신가 안부를 묻다가 명단에 종교가 잘못 표기되어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마자 옆에 앉아 있던 따님이 차갑게 "개종했어요"라고 말하는데 몹시 당황스러웠다. 환자분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지며 아무



그림 · 최주현

말이 없었다. 어떤 말을 붙이기도 참 어려운 분위기였다.

병실을 방문하며 기도한 물이라고 감로수 물을 가져다 드리면 너무 좋아했다. 따님도 처음보다는 많이 친절해졌고 가끔 절에서 가져온 떡을 주면 고맙게 받기도 하였다. 보살님은 아들과 큰 딸, 작은 딸이 있었는데 몸이 아픈 뒤로 작은 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에게까지도 작은 딸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상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씩 어려워졌다. 그런 어느 날 병실을 방문했을 때, 환자분이 나를 불렀다. 목탁과 요령이 든 주머니를 내게 건네며 "스님, 제가 이제 부처님과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소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힘없이 말하였다. 나는 고동색 주머니를 받아들고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머릿속 생각을 뒤적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환자분의 앞 병상 불자 환자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목사님이 들어왔고 환자분에게 기도를 시작하였다. 문득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환자분의 시선은 앞 병상의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와 있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저 입을 크게 벌려 활짝 웃어드린 후 법당으로 내려왔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며칠 후 환자분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그에게서 받은 목탁과 요령을 사용하여 임종하는 불자들을 배웅한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부처님께 편안히 돌아가시길 기원하며 정성껏 '나무아미타불' 염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불교 중흥 밑거름 '자비순례'

10월 7일 새로운 만행결사가 시작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후 태화산 예비순례를 거치며 결사대중들은 결사정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도 부처님 성지에서 진행될 만행결사를 대신하여 자비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2019년 11월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은 풍찬노숙 속에서의 구도열이란 점에서 불자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20년 10월 이젠 대중들의 풍찬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대중들은 텐트와 도시락 등 길 위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한 부처님의 전법만행을 그대로 따르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스님들이 대가사를 수하는 여법함을 보임은 물론이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례 중에는 묵언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과 발열 점검 등도 철저히 진행한다.

한국불교사에서 그동안 수많은 결사가 있었지만 함께 길 위에서 사부대중이 전법과 만행을 한 결사는 이례적이다. 21일간 이들이 걷는 500km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동안거 정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인도만행결사를 대비해 열렸던 태화산 예비순례는 걷기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번 국난극복 불교중흥 자비순례는 불교 순례가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순례단이 노숙을 할 10월의 날씨는 춥다. 10월 27일 봉은사에서 결사대중들의 원만회향과 함께 한국불교 대중흥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비대면 시대 '공모전'으로 포교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포교전략으로 공모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이야말로 요즘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행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모전은 주제와 분야에 맞는 작품을 규격에 맞게 각자 준비해 발송하는 형태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나 수상자 발표도 온라인과 연락망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전에서 유일한 대면 행사는 시상식 정도인데, 이 역시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해 왔던 수많은 행사가 취소됐지만 공모전 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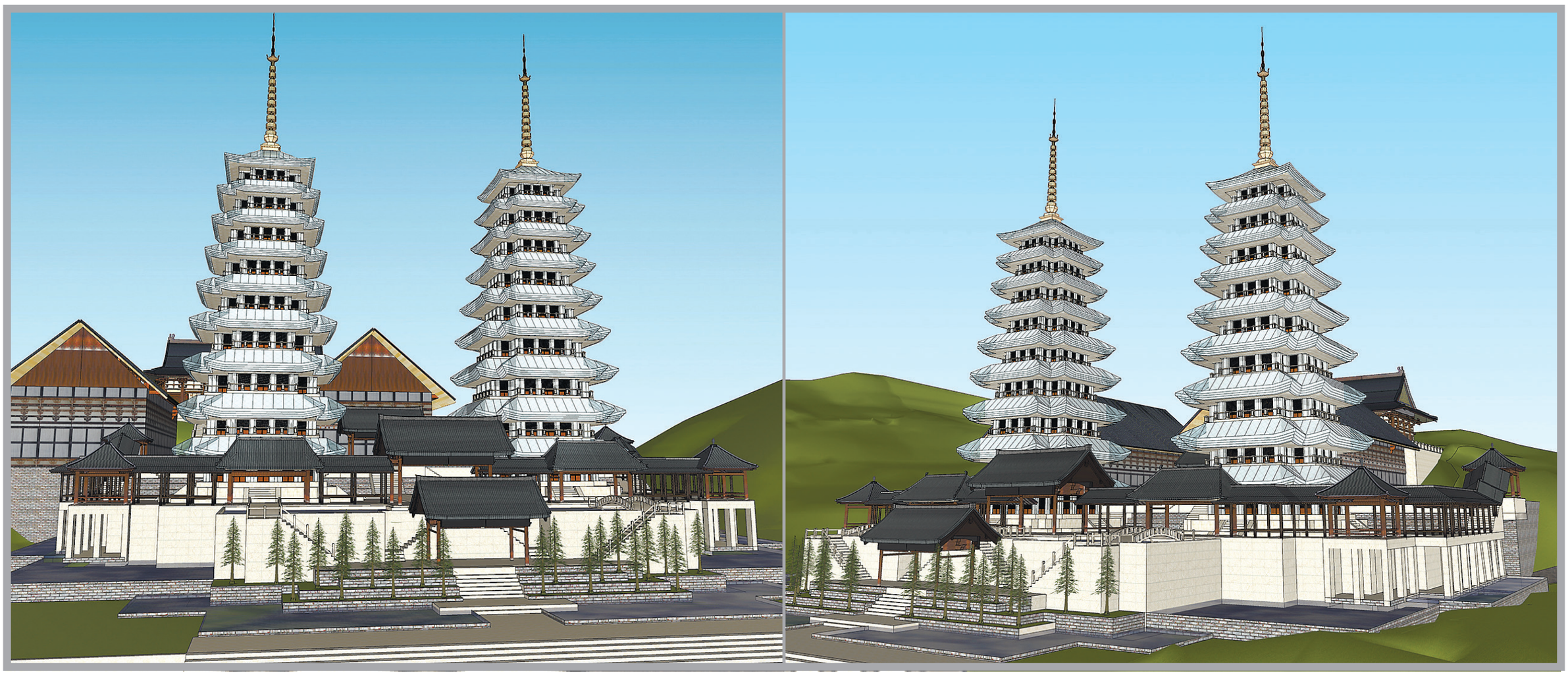
공모전이 가진 장점도 많다. 대면행사가 장소 마련부터 참석자 모집,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이 큰데 비해 공모전은 상금 규모에 따른 예산과 최소한의 실무자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공모전 주제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장소에 메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요강을 살피는 과정에서 주최 단체나 사찰의 특성과 이름을 자연스레 인지하게 돼 홍보효과도 적지 않다.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쌓이면 참가자가 많아지고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대면 행사처럼 한 곳에 모여 직접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효과는 다소 약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는 요즘 세대에는 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모전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보다, 대중과 더 폭넓고 간편하게 소통하는 또 하나의 포교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총무원장 호 명
종 도 일 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TEL 02)739-3450 FAX 02)739-3470





평화의 랜드마크 육지장사에 선다

평화 발원 쌍둥이 불탑

탑 높이 77m, 총면적 2천평

지하 2층, 지상 9층 구성 돼

지하엔 8만4천 탑전 들어서

2~7층, 명사평화축원문 전시

유리로 無影, 평화의 빛 표현

삼보사 창건 37주년 법회

10월 18일 양주 육지장사서

마가 스님, 마음백신 콘서트

김나래, 명상 음악과 공연도

10월 10일~11월 29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1시

차담과 건강 주제로 특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대탑이 양주 육지장사에 건립된다.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는 지난해 4월 26일 양주 도리산 육지장사 광장서 평화대탑 불사 고불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평화대탑은 휴전선 인근지역인 양주 백석읍 육지장사 1만평 부지에 세워지는 쌍둥이 불탑이다. 탑을 세우는 것은 예로부터 사리를 봉안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한 출발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크고 작은 탑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조성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수용된 4세기 후반부터 여러 대탑을 세웠다. 고구려 영탑사 대탑을 필두로 고구려 청암리 팔각대탑, 백제 왕흥사 목탑, 미륵사지 목탑 등이 건설됐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 구층대탑을 통해 삼국통일의 원력을 모았으며, 고려시대에는 만복사 대탑, 조선시대 법주사 팔상전 등 1천여 대탑이 건설됐다. 이번 평화대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모와 방식이다. 대탑은 높이 77m에 총면적 2000평을 자랑하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시설로는 1층 평화전시관과 함께 2~7층에는 세계명사 1800명의 평화축원문이 전시된다. 8층에는 명상원이, 9층에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지하에는 8만 대장경을 상징하는 84000탑전과 전시장, 세미나홀, 교육장 등도 들어선다. 특히 지하의 84000탑전은 세계인들의 정성을 모아 시주발원해 공존 공생의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성 속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화합한다는 불교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두 개의 탑이 세워진다. 높은 탑은 양날개를 가진 듯 세계로 날아오르며 평화의 빛을 내뿜는다.

1 - 쌍탑은 좌우대칭으로 있으나 모든 시점에서 변화하는 하나의 탑으로 보이듯이 기획된다. 흩어지고 모이는 변화 속에 당당히 자리를 지키는 탑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2 - 구조물은 크게 탑동과 회랑동, 지하동으로 이뤄져 있다. 탑동은 철골구조 위 유리기와와 유리벽돌로 마감이 되며 회랑동은 전통한옥 목구조 위 전통기와로 마감된다. 지하동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 위 벽돌로 마감되며, 각 부분별로 다양한 자재를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팔각탑 형식에 21세기를 상징하기 위한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이 사용될 예정이다. 팔각탑은 평화의 상징으로 동서남북 등 8개 방향과 상하 2개 방향으로 시방세계를 나타낸다. 또한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을 사용해 무영탑을 표현한다. 이 탑은 그림자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형식이 될 때 가능하다. 유리로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탑을 통해 평화의 빛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평화대탑을 설계한 선건축의 대가인 김개천 국민대 교수는 "좌우대칭의 쌍탑은 무영탑으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며 "산자락에 위치한 대지의 조건을 훼손시키기 보다는 전통방법으로 석단을 쌓아 점진적으로 하늘로 올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 영지에 비친 물밑의 하늘로 뻗은 모호하고 장대한 빛과 그림자의 흔적 같은 건축을 구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투명한 듯 빛을 품은 탑은 우뚝 솟아 있으나 가볍게 느껴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물에 비친 모습까지 더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함과 장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를 추진하는 삼보사 ·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불교가 전래 된지 1700년 동안 불교 문화의 전통을 슬기롭게 이어온 지혜로운 민족"이라며 "현재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남북 분단도 평화롭게 잘 타협해서 기필코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평화의 상징물로 이번 평화대탑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육지장사에 1만평 부지를 마련해 25년을 준비해왔다. 대탑 발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의지와 힘을 결집시켜 평화대업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포교 중심지로 출발한 서울 은평구 삼보사가 창건 37주년을 맞아 양주 육지장사 실외 광장서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차담과 건강, 힐링을 주제로한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들은 코르나 19 방역 지침에 의거해 철저히 방역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육지장사 측은 밝혔다.

삼보사 (02)352-6406/육지장사(031)871-6574

삼보사 창건 37주년 법회

양주 육지장사 야외광장서 펼쳐져

▲10월 10일:1부 오전 11시~12시/2부 오후 1시~2시/3부 오후 2시~3시

최해연 고마이계 한국지부장이 차와 건강을 주제로 차담을 실시한다. 고마이계는 중국 호남성 명차로 잠 잘 오는 차로도 유명하다. 물통 지참자에 한해 육지장사 옹달샘서 나온 육각수 2통씩을 보시한다. 이 행사는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월 18일: 삼보사 창건 37주년 기념 법회 일환으로 1부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산신제를, 2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국민멘토 마가 스님을 초청해 '코로나 블루시대 마음백신 콘서트' 를, 이어 점심공양 후 오후 1시부터는 김나래 태교음악 연구가의 3부 명상 콘서트와 국악의 선율 향연이 펼쳐진다.

▲10월 25일: 파파르챠 쥬얼리 연구소 박소현 원장이 '보석과 건강 운명' 을 주제로 1부(오전 11시)와 2부(오후 1시)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보석에서 얼마 만큼의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11월1일: '어떤 물을 마셔야 건강한가?' 를 주제한 특강이 1부(오전 11시)와 2부(오후 1시)로 나눠 진행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39년 전통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명품 교육기관

하반기 신입생 모집

- 기초교리학과 (월)
- 불교문화학과 (수, 금)
- 원각경 (연세대 신규탁 교수)
  - 11월 5일, 12일, 19일, 26일(목)
- 범어 원전을 통한 경전의 재해석 (중승대 현진 스님)
  - 12월 1일~2월 23일 (화)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2020년 승려 연수교육

- 과 목 : 유식 30송 강설
- 교 수 : 이 만 (동국대 명예교수)
- 일 정 : 11월 23일(월)~27일(금) 총 5일간
- 시 간 : 13:30~16:30
- 수강료 : 15만원

※ 조계종 승려는 선착순 50명까지 교육시간 80%이상 이수시 승려연수 점수 30점 인정.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스님 유튜브 법문, 일본서 인기

3년간 누적 조회수 340만 회 상회

스마데라 부주지 요진 스님
재일법회 법문 격주 업로드
유튜브로 설법대회 개최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고베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 이곳의 부주지 코이케 요진 스님이 '유튜브'를 이용해 전파하는 법문이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업로드 된 법문의 총 누적 조회수는 이미 340만 회를 넘겼다. 지난 10월 5일 일본의 'IT 미디어 뉴스'는 유튜브 법문으로 포교활동에 열심인 요진 스님의 활동을 보도했다.

요진 스님이 유튜브 영상을 결심한 것은 3년 전. 스마데라 인근에 사는 웹디자이너에게 "요즘 사찰들은 모두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열중이지만, 앞으론 동영상이 뜰 것"이라는 조언을 받고 부터다. 당시 불교계에서 동일한 주제의 동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요진 스님은 "일본에서 사찰은 장례나 제사와 같은 의식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진정한 불교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며 법문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하기로 결심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매달 스마데라의 재일법회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형태로 촬영을 시작했다. '스마데라 코이케 요진의 수상록'이라고 채널의 이름을 짓고, 격주로 법문영상을 업로드 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 조회수는 두 자리 수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스님은 "보통 사찰에서 진행하는 법문은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법문은 10분을 넘기면 조회수가 급도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법문을 하다 보니 생각한 시간을 항상 넘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지를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2만 4천명, 누적조회수는 343만 7천여 회에 이르고 있다.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구독자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와 60대, 20대는 아직 3%가량이다. 스님은 "한번은 유튜브를 구독하는 80대의 노보살님이 나를 직접 보고 싶다며 직접 방문하신 적도 있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올리는 법문을 편집하는 요진 스님. 사진출처=IT미디어 뉴스

요진 스님은 "불교를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법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법문을 콘텐츠로 유튜브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파를 초월해 8명의 스님들이 각 10분 간 법문을 하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설법대회를 열었다.

본래 설법대회는 교계 내에서 젊은 스님들끼리 진행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면서, 스님은 "법문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다시 법문을 듣고 싶은 스님'을 선정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전했다. 실제 대회는 큰 반향을 일으켜 전체 420석의 참석티켓이 불과 10여 분만에 매진 됐다.

스님은 "올해도 설법대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단됐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대신 요진 스님의 주도로 종파를 초월한 스님 33명이 법문영상을 촬영해 차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법문 순례 33'을 준비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 식용소 국내 도축 금지

불교 등 종교계 압박 영향
지속적인 요구 정부가 수용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에서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9일, 'AFP 뉴스' '더 힌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정부를 압박해온 불교계와 힌두교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초 스리랑카의 집권여당인 SLPP(스리랑카 인민전선)는 의회에 소 도축 금지를 발안했다. 대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찬성하였으나, 여러 쟁점에서 내각승인이 늦어지던 것이 최종적으로 지난 29일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도축용으로 키워지거나 도축이 준비되던 소들을 보호할 시설이 확립된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내수 소비를 위해 수입산 소고기 연간 120톤 정도는 허용된다. 현재 스리랑카 전국에는 150만 두의 소와 47만 두의 물소가 사육되고 있다.


길가에 방목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소들. 사진출처=AFP 뉴스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 내 주류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 단체의 지속적인 압박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스리랑카 불교계에서는 오랫동안 도축금지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압박은 1958년 스리랑카 내에서 12세 미만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완전한 도축 금지를 요구했고, 지난 2013년엔 한 스님이 소 도축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파문이 일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이번 조치는 소고기의 주 소비층이자 도축업의 주요 사업자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축업에 주로 종사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소수종교를 경제적인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소고기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피해와 육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나친 도축으로 전통적인 낙농업에 필요한 가축자원이 부족하다는 농가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소 도축에 의한 낙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UP주, 순례길 관광개발 착수

카우삼비 지역 유적 등
관광벨트화…명상센터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관광부가 고대 도시인 카우삼비(Kaushambi) 지역 등에 있는 관광지를 불교 순례길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주 관광부가 인도 정부의 '스와데시 다르샨(Swadesh Darshan)' 구상에 따라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인도 월간 잡지 스와라쟈(swarajya) 등이 10월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와데시 다르샨은 인도 정부가 고대 관광지의 잠재력을 촉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2014년 착수한 프로젝트다.

주 관광부 차장은 "이와 관련한 제안서가 주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곧 제출될 것"이라며 "산림 · 예산 · 관광 등 다른 부처들과 연계해 종교 ·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여러 구역에 대해 정교한 조사를 실시,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된 불교 순례길은 고타마 부처님이 탄생한 네팔의 룸비니부터 처음 깨달음을 얻은 비하르의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한 사르나트, 열반한 쿠시나가르 등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만약 이 제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면 우리는 불교 관광 명소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웅장한 명상 센터를 포함해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식당, 대합실, 수공예품 시장, 상점 등 공공 편의시설과 야외 극장, 물놀이장,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환전소 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광명소 대부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관광객들을 명상센터까지 실어 나르는 자체 전기 오토릭샤(E-rickshaw) 서비스도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속 온라인 통해 자비행 실천

스리랑카 불교구호단체 BGR
빅쿠 보디 스님 주도로 활동



불교국제구호단체(Buddha Grobal Relief, BG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 10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

매년 전 세계 기아들을 위해 걷기 모금 운동을 펼쳤던 불교국제구호단체(Buddha Grobal Relief, BGR)가 10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걷기 캠페인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 것.

불교 온라인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가 9월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BGR은 최근 온라인 기아 구호 활동인 '전 세계 기아들을 위한 불교 행동(Buddhist Action to Feed the Hungry)'을 마련했다.

당초 BGR의 주요 활동은 걷기 캠페인인 '기아들을 위한 걸음(Walk to Feed the Hungry)'이었다. BGR은 전 세계 각지를 걸으면서 국제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금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에서 창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 같은 캠페인이 어려워지자, BGR은 온라인상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국 전역의 스님들과 불교센터들이 힘을 합쳐 BGR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 기아 문제 관련 강연, 저명한 불교 스님들의 다르마 강연, 생중계 다르마 모임 등을 주최한다.

BGR 설립자이자 스리랑카 출신 미국인 스님 빅쿠 보디(Bhikkhu Bodhi)는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치는 이유로 "부처님은 '굶주림보다 더한 병은 없다'고 가르치셨다. 양심 있는 불교도라면 궁핍한 사람에게 식량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며 "스리랑카에서 스님으로 출가한 첫 해에 내가 그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아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라이언스로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당시 나의 스승님이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면서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았다"며 "그때 느낀 것은 맛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육체적 필요에 의한 갈망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나는 기아들의 상황과는 달랐지만, 영양소가 부족할 때 찾아오는 우울함과 공허함이 어떤 기분인지 안다. 그들의 고통과 내 마음의 끈이 연결돼 있다고 믿고 나는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역사 속 왕들, 스님께 가르침 받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⑲ 왕의 스승이 된 스님

지난 9월 2일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희랑 대사 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999호'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나말여초 고승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상이 300여 개밖에 없는 '국보' 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아마 지면에 글이 나갈 때쯤이면 한 달의 지정 예고가 끝나고 국보로 승격되어 있을 것이다.

언론도 희랑 대사 좌상의 국보 승격에 대해 비교적 크고 상세히 보도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초상 조각이인 데가 깎고 칠한 솜씨가 사실적이기도 하고 또 유려하기도 해 그 가치에 충분히 수긍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언론이 리드글로 뽑은 건 따로 있었다. '문화재' 로서의 가치가 아니었다. '왕건의 스승', '北 제자 왕건상 기다리던 희랑 대사', '태조 왕건 도운 희랑 대사' 등 한때 있었던 왕건과 희랑대사의 인연에 집중했다.

희랑대사가 왕건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고려 전기 스님인 균여의 삶을 다룬 〈균여전〉(1075년), 조선의 관료 유탁기(兪拓基)의 쌍계사와 해인사 기행문인 〈유가야기〉(1712), 〈가야산 해인사 고적〉(1874) 등에 등장한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신라 말에 가야산 해인사에는 관혜공과 희랑공 두 분의 고승이 계셨다. 두 분 모두 화엄의 대가였으며 서원이 같았다. 하지만 관혜공은 백제 견훤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희랑공은 태조 왕건의 복전이 된다. 정치적 격변기에 선택한 인물이 각각 달랐다.

사람들은 관혜공의 법문을 일컬어 남악이라고 했고, 희랑공의 법문을 일컬어 북악이라 했다. 둘 사이가 벌어진 만큼 나중에는 문도 사이도 점차 물과 불처럼 되었다.

여기에 전설도 끼어드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왕건이 해인사에 들어와 희랑공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백제를 물리칠 방법을 청하자 희랑공이 용적대군야차왕(勇敵大軍夜叉王)을 보내 도왔다는 것이다. 또 기록에는 희랑 대사가 입적하자 고려 광종이 시호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려사〉나 〈절요〉에서 희랑대사 이야기를 찾을 수는 없다. 앞에 말한 세 책 역시 모두 개인의 문집이나 후대 사찰의 기록이다. 물론 그렇다고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기록에 나온 내용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뿐이다.

왕건의 공식 스승 법경 · 진경 대사

그렇다면 공식적인 '왕건' 의 스승은 누구였을까?

고려 시대에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제도가 있었다. 왕사는 그야말로 국왕의 스승 또는 사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사는 거개가 국가의 원로 역할을 했다. 왕사는 고려 태조 때부터 그 제도가 있었고 국사는 광종 때부터 보인다.

고려 태조 왕건의 공식적인 스승은 법경 대사 경유(慶猷, 871~921) 그리고 진공 대사 충담이었다. 경유 스님은 신라 진성여왕 1년(888) 조공사(朝貢使)를 따라 당나라에 건너갔고 효공왕 11년(908)에 귀국했으며 고려가 개국하자 첫 번째 왕사가 되었다. 경유 스님은 태조 4년(921)에 입적했으니 왕사로 있었던 기간은 무척 짧았을 것이다. 경유 스님에 대한 기록 역시 〈고려사〉나 〈절요〉에는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그의 비문은 입적 후 '국가적인 사업' 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문에 적힌 '왕사의 예우를 받다 입적했다' 는 기록은 '공식적' 으로 볼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공식적인 두 번째 스승은 진공 대사 충담이다. 〈고려사〉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왕사다. 〈고려사〉 태조 23년 7월 기사에는 "가을 7월 왕사(王師) 충담(忠湛)이 죽자, 원주(原州) 영봉산(靈鳳山) 흥법사(興法寺)에 탑을 세우고 왕이 직접 비문(碑文)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보 지정 예고된 '희랑대사좌상'
고려 태조 스승상으로 유명하나
공식기록 스승, 법경 · 진경 대사
최초의 國師는 신라의 경흥 스님
국사 관련 사지 · 유적 도처 존재

진공 대사 충담 역시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유학승이다. 특이한 것은 충담 스님이 신라 신덕왕의 왕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신라와 고려 두 개의 왕조에 걸쳐 왕사가 되었던 인물이다.

원주 흥법사에 있던 진공 대사의 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관에 모셔져 있다. 진공대사의 탑이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탑 앞에 놓인 석관 때문이다. 대부분 승탑이 탑 안에 사리공을 만들고 그 안에 사리를 안치하지만 진공대사의 탑은 석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사리를 모신 것이다.

최초의 國師 경흥 법사

한걸음 더 나가 보자. 왕사나 국사 제도가 처음 생긴 건 신라시대였다. 기록에 따르면 신문왕 때 경흥 스님이 처음으로 국로(國老)로 임명되었다.

신문왕의 뜻은 아니었던 듯하다. 문무왕이 죽을 때 신문왕에게 "경흥 법사는 가히 국사로 삼을 만하니 나의 명을 잊지 말고"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이력이 낯설다. 〈삼국유사〉에는 "신문왕 때 대덕 경흥 법사는, 성이 수씨이며, 웅천주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수(水)라는 성은 백제 성씨였고 웅천주는 지금의 공주, 그러니깐 삼국통일 전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다. 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는 당나라가 도독부를 설치해 한반도 지배를 꿈꾸던 곳이기도 하다. 통일 군주 문무왕의 문화통일에 대한 꿈이 얼핏 읽힌다.

물론 경흥 법사는 이런 '배려' 가 없었어도 국사가 될 만한 충분한 재목이었다. 경 · 율 · 론 삼장에 능통했다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모두 47종의 저서를 남겨 그 무렵 원효 스님에 이어 가장 활발한 불교 연구와 저술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그는 '국사' 에 임명되자 신문왕의 지시로 신라 수도인 경주의 삼랑사에 머물게 된다. 삼랑사는 경주 시내를 흐르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김유신 장군묘와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왕궁과는 걸어서 40~50분 거리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경흥 법사는 삼랑사에서 왕궁까지 말을 타고 다녔던 것 같다. 〈삼국유사〉에는 "말과 안장은 매우 화려하고 신과 갓도 제대로 갖추었으므로 길 가던 사람들은 길을 비켰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습이 몹시 엉성한 차림의 승려가 마른 물고기가 있는 광주리를 들고 하마대(下馬臺) 앞에 앉아 있었다. 경흥 법사를 시종하는 이가 그를 보고 "너는 중의 옷을 입고 어찌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지고 있느냐"고 책망하자 엉성한 차림의 승려는 "산 고기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있는 것보다 삼시(三市)의 마른 고기를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라고 일갈한다.

말을 타고 궁궐로 향하는 '승려' 의 모습을 힐난한 것이다. 경흥 법사가 문을 나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 그를 쫓게 했는데 그는 남산 문수사 문밖에 이르러 광주리를 버리고 숨어버렸다. 그가 짚었던 지팡이는 문수사 문수보살상 앞에 놓였고 마른 고기는 소나무 껍질이 되었다고 한다.

경흥 법사는 이 말을 전해 듣고 탄식하며 "문수보살이 와서 내가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구나"고 탄식하며 그 뒤로는 일체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삼국유사〉에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경흥 법사의 병을 치료해주고 삼랑사 남쪽에 있던 남항사로 숨어들었는데 그가 짚고 있던 지팡이가 "새로 꾸민 불화(佛畵) 십일면원통상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재 경흥 법사가 머물렀다는 삼랑사 터에는 당간지주가 남아 있고 주변이 비교적 보존이 잘 된 편이다. 이번 여름에 들렀을 때도 시에서 나왔는지 문화재청에서 나왔는지 아저씨, 아주머니들 여럿이 열심히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설의 장소인 남항사터의 성보는 그렇지 않다. 석불입상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처지가 애처롭다. 높이 1.2m의 석불입상은 보호각 안에 갇혀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에 버스 차고지가 들어서 있다. 차고지 한쪽 구석에 천덕꾸러기처럼 모셔져 있는 석불입상은 수십 대의 버스 뒤꽁무니에서 나오는 매연에 얼룩덜룩하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정도면 차라리 박물관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을 정도다.

신라의 일정한 시기 그리고 조선 초 국사와 왕사 제도가 폐지되던 시기의 잠깐을 제외하고 왕사나 국사는 '정치' 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당연히 원래 주석하던 절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왕궁에 출입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전답을 하사하는 등 예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적 스승' 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정치와 종교가 음이나 양으로 결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새겨볼 일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고려 태조 왕건의 왕사였던 진공대사의 탑<사진 위>과 석관<사진 아래>이다. 부도라고 하지 않고 탑이라고 하는 이유는 탑 앞에 사리를 모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이 따로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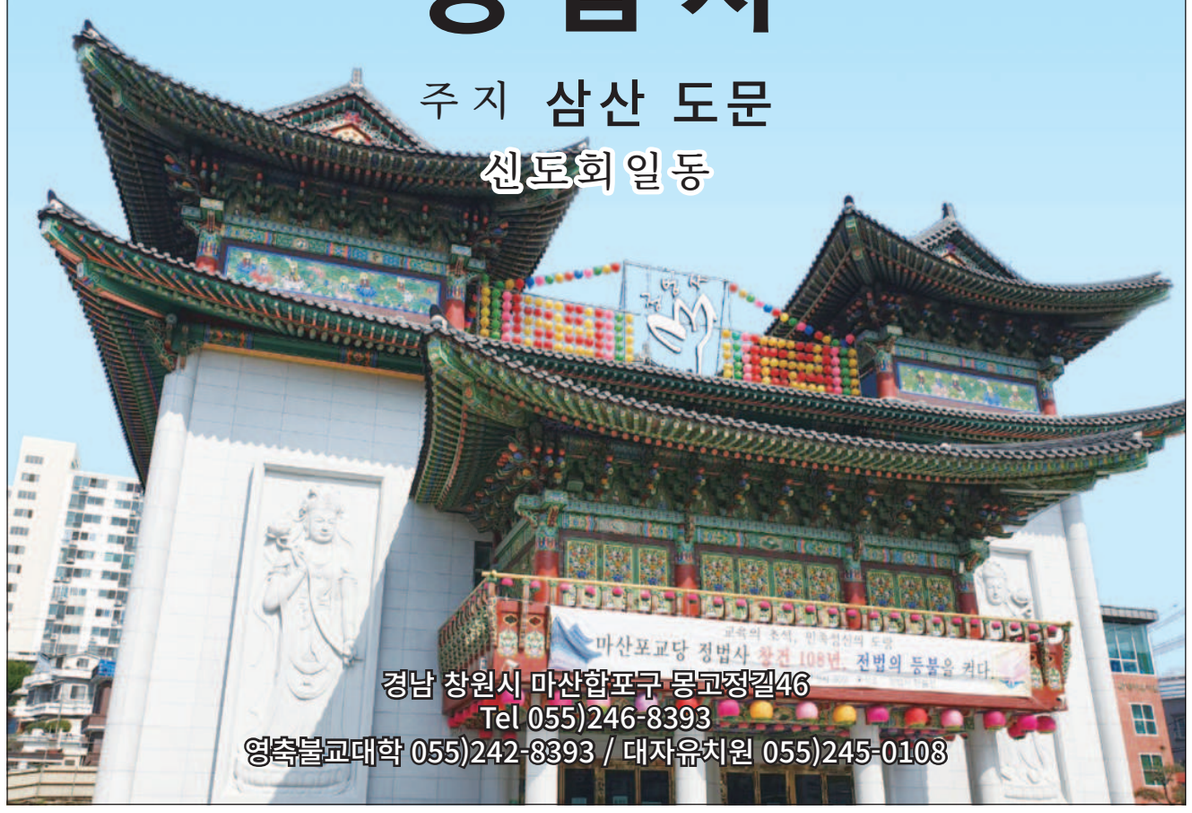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주지 삼산 도문

신도회 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Tel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 불기2564년 -

사찰 및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 **제목** : (현)대한국불교 조계종에서 (신)사단법인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로
◉ **내용** :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신청서1부(대표자증명사진부착)
◉ **승려분한신고** : 승려분한신고서1부(증명사진부착)
◉ **준비물** : 증명사진 2장(장삼 가사 입고 찍은 사진), 주민초본(등본)1통
◉ 사찰주소, 법명
◉ **신고기간** : 2020년 10월20일(음력 9월4일)부터 2021년 1월20일(3개월)까지
◉ 앞으로(대한국불교조계종)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못 함을 종단사찰스님들께 공고합니다.
◉ (대한국불교조계종)은 각, 세무서에 말소등록신청
◉ **문의** : 사)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총무원)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불로 208 불광사
불광사 055-232-7819, 성보스님 010-8540-8209

사단법인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합장

‘言’성찰서 시작된 개혁 ‘대승불교’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④ 말과 행동, 그리고 사상



그림 · 박구원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행보는 충격적이다. 아직까지도 인도 내에서는 카스트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고, 현재의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인종차별, 계층차별, 남녀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등 각종 차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부처님은 서슴없이 평등을 외쳤다. 불가촉천민의 출가, 여성의 출가 등 출가 이후 불가촉천민이든 왕족이든 평등한 대우, 연령무관의 출가 등 인간이 만든 무수한 틀을 과감히 타파하였다.

지금도 고대시대에 존재했던 차별행태가 세계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충격적 사회개혁은 아직까지도 좀처럼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더구나 지역이나 사람들에 맞는 언어구사는 부처님의 배려와 친절, 자비의 상징이다. 그 언어구사에는 다른 언어, 그리고 계층이나 연령, 등 선호도에 맞는 내용, 어렵고 쉬운 말의 강도 등을 상대에 맞게 이야기해주는 자비심과 지혜였다. 깨달음의 심오하고 깊은 이치를 이야기하기까지 깊은 고심이 있었던 부처님이었지만, 중생을 위해 입을 열어야겠다는 용기와 함께 또 하나의 위대성은 진리의 대중화로 이끈 점이다. 이를 위해 100인 100색의 사람들에 맞는 스피치로 설득을 해야만 했고, 시의적절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설법을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진정한 대승보살의 운동이자, 불교적 혁신운동이다.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대중포교, 대중설법, 대중스피치가 바로 대승불교의 힘이다. 아라한, 출가수행자 못지않게 재가자에게도 이 가르침을 설(스피치)한 부처님의 자비심은 무한하고 광대하다.

안심법문의 부처님 스피치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핵심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는 안심법문 즉 이고득락(離苦得樂)과 모든 존재들에게 유익한 행위 즉 요익중생(饒益衆生)이다. 도를 닦아 해탈하거나 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대승불교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인물 중 세친보살(世親, Vasubandhu)이 있다. 세친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30게송으로 정리하였다. 세친은 초기불교, 대승불교를 두루 거쳐 이 둘을 통합한 이론으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세친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즉 자신 뿐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다는 기본신념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고 내 주변, 내 인연, 내 인식이 다 중요하다. 부처님의 중도를 확장시켜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한 따뜻한 법문이 세친이 지향하는 ‘유식’이다. 부처님의 안심법문, 세친의 따뜻한 법문이 다 우리에게는 생명수 같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인도한다. 요즘 붐이 되고 있는 명상도 이 안에서 설명되어진다. 내가 나를 돌봐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남을 돌보는 이 마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유식의 골자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의 말을 하라’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유식에서도 저 밑의 제8아뢰야식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저장되기 때문에 생각과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존재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서로간의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그 무엇, 또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있어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다. 더불어 누군가에 대해 긍정으로 생각하면 그 긍정의 파동이 서로 연결되어 같이 느낀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느껴진다. 가깝게는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 내 몸의 장기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더 작게는 세포들이 알아듣는다.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세포가 슬퍼하거나 죽거나 신이나 하거나 한다. 내가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이 놀랍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도 마찬가지다. 부정으로 생각하면 제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말에 대한 성찰이 명상이다.

따라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혹은 옳다 그르다 등의 주장은 나의 전부가 아니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것을 주장할 것이 못되며 모르는 것을 사유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사유라는 것이 관건인데 다른 말로 하면 관찰이다. 여러 가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화가 나려고해’ 이러한 말이다. ‘이런 것을 분노라고 하는 거야’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한 수순이다. 마음의 작용이 시작될 때 아뢰야식도 함께 움직인다. 내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표현해주는 스피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세친보살은 이러한 방식의 설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었다. 요즘 초기불교와 그에 따른 명상이 유행이다. 대승불교의 한계를 들먹이면서까지 초기불교에 대한 부각이 커지고 있다. 불교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대승불교가 불교의 새로운 혁신운동이 된 의미를 새겨본다.

> “
> **긍정적 사고와 발언이**
> **긍정적 사태를 만들어**
> **플라시보 효과로 입증**
>
> **상대배려의 언행 필요**
> **언어와 사고 관계 고찰**
> **코로나 극복 지혜 나와**
> ”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의 출현은 지극히 혁신적이었으며, 새로운 바람의 진보적인 불교였다. 그러나 현대는 초기불교 운운하며, 대승불교가 마치 오래된 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패가 있다. 명상은 초기불교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불교 그 자체이다.

‘이 세상은 가짜이며 허구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과 고정관념에 속박되어 있다. 머릿속 생각들 모두가 다 속박일 뿐이다.’

흔히 듣는 불교적 문구들이다. 이는 초기불교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돌발적인 쇄신을 불러 외친 대승불교의 목소리였다. 제 2의 석가라는 칭호를 받는 용수보살(龍樹, Nagarjuna)이나 천재적 지혜를 대변하는 세친보살이나, 보살의 칭호까지 받으며 우뚝 선 대승불교의 두 거봉이다. 불교의 지적인 핵심이론을 해체시키며 그 허구를 또한 해체시켜버린다. 탈이분법적 논리학으로서 강한 논리를 들이댄다. 우리의 생각이 다 허구이며 가짜임을 당당히 언사로 표현하였다.

‘이언견언(以言遣言)’ 즉 생각을 통해 생각을 부수듯, 말을 통해 말을 부수어버리는 과감하고도 통쾌한 짓을 용수는 실행해 보인 것이다. 흔히 불교는 ‘말’과 먼 듯 이야기하고 있으며, ‘말’의 경시도 부족해, ‘말’의 도외시, 무시, 무관심 등으로 비춰오곤했다. 그러나 가장 선적인 것이 가장 언어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각이 허구임을 폭로하기 위해 용수보살은 과감히 말이라는 수단을 멋들어지게 사용하였다.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는 말에 얽매인다는 반증이며, 말에 속박당해 힘들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요즘 명상이 붐이고 유행이다. 불교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명상의 대중화는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교 내에서 보면, ‘명상은 곧 초기불교의 한 부분이며, 초기불교만이 부처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등으로 일관하며 권장 경전이나 인용 경전도 초기불교경전이 오리지날인 듯 비춰지는 모습에 의아해지곤 한다. 초기불교이후 수만 갈래로 나누어진 불교이론들을 각성시키고 단칼에 깨부수고 대승불교라는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 모이게 한 것은 분명 쇄신과 혁신의 종교개혁이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제자인 5비구들에게 첫 법문을 설한 내용은 ‘중도’였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내용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용수보살의 중관학도 이 중도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용수보살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최초의 말씀으로서, 초기불교의 색깔을 가장 짙게 칠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대승의 거목이지만 초기불교의 최초 설법을 말했다. 아직도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길 멈추지 않고 있다. 이분법적 논리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용수보살은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 강한 논리적 표현인 논법을 사용하였다. 즉 말에 의해 말을 버린다.

이러한 방법이 본격적으로 세련되게 나타난 것이 중국의 선불교다. 중국 스님들의 행적들 중에서 그분의 말씀은 게송, 시로 남으며 곧 화두가 된다. 선승들의 행적과 말씀은 기이하고 특이해 동문서답하는 식의 오리무중의 화두로 남아 참선수행의 도구로 남아있다. 이 또한 말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화두스피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환희에 찬 오도송 즉 깨달음스피치, 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한 화두인 선문답스피치 등으로 확산되었듯이, 선은 철저히 언어의 종교이다.

이 시대에 해야 할 불자의 도리

동북아시아의 오롯한 대승의 정신이 남아있는 한국불교, 그 한국불교가 퇴색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외적 상황인 코로나 19, 기온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당황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다. 따뜻한 말, 친절한 말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순응하며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표현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말은 하지 않으면 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다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내 위주의 아상만 자라나게 된다. 필요한 말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불교의 힘이 될 것이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의 최초사찰
천육백년 전통사찰 나한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금련산 마하사

주 지 정 산

· 신도회장 무변심
· 관음회장 도명화
· 거사회장 정 현
· 천수회장 지혜안
· 목우회장 법등행
· 청림회장 광 인
· 교사불자회 금강경
· 합창단장 이기순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금련산 마하사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 138 (연산동 2039)
전화 051)852-2436, 866-0606 | 팩스 051)867-1770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차 한잔하듯
나누는 스님과의
고민 문답
36개의 일상적 고민,
36개의 부처님 해답

목종 스님 지음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TEL 051) 742-7610

전통유학 본체론에 불교 핵심 수용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⑲ 화엄 및 선종사상이 송명이학에 미친 영향



그림 · 강병호

송명시대는 선종이 범람하면서, 유학자들도 잇달아서 불교의 핵심이론 및 사상을 받아들였다. 특히 전통유학의 형이상학적인 본체론의 구축에 대해서 특색을 갖춘 이론 및 사유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교적 영향이 컸던 사상체계로서 장재(張載)의 기본론(氣本論), 정주(程朱)의 이본론(理本論), 육구연(陸九淵) · 진헌장(陳獻章) · 왕양명(王陽明) 등의 심본론(心本論)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주희의 철학적인 이론체계가 가장 완벽하다고 하며, 원대로부터 정주이학(程朱理學)은 관방의 기본적인 의식형태로 정의되면서, 명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형식에 치우친 위선 및 교착상태로 정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안으로 풍부하게 비축했던 사상적 범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점차 생기를 잃어 갔다.

송대의 이학(理學)은 불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화엄사상 및 선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 점은 중국사상사에서 이미 공론화된 관점이다. 이학이 화엄사상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바로 선학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특히 선학의 각 파 가운데서 화엄사상과 가장 근접해 있는 조동선이 그 예가 된다. 특히 그 가운데서 정주이학(程朱理學)의 많은 학설적 관점은 조동선의 '편정회호(偏正回互)' 와 유사한 이론의 흔적이 많다. 정이(程頤)는 〈정씨이전서(程氏易傳序)〉에서 "은미(隱微 · 미묘)에 이르는 것은 이(理)이고, 현저(顯著 · 뚜렷하다)에 이르는 것은 상(象)이지만, (이것은) 체용일원(體用一源)으로 현저(顯著)한 사물과 미묘(微妙)한 사물 간의 관계는 불가분이다"고 했는데, 여기서 '미(微)' 는 곧 유은(幽隱), 미묘(微妙) 등의 뜻이고, 현(顯) 명현(明顯)은 현저(顯著)의 뜻이다. 즉 정이는 미묘한 이(理)와 현저한 상(象)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틈새가 없다는 것이다. 즉 무형의 이(理)는 물상(物象)을 통해서 그 의의(意義)와 공능을 현시(顯示 ·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했으며, 유형지물(有形之物)은 무형의이(無形之理)에 근본을 둔다는 것이다. 정이(程頤)의 이러한 사상적 논리체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화엄사상인 사법계의 이사(理事)관계, 선종에서 미오(迷悟) 범성(凡聖) 내지 진망(眞妄) 본말(本末) 동정(動靜) 등의 대립적 구조를 통한 불이(不二)관계인 체용일체와 너무도 흡사하다.

한편 정이가 말하는 '체용일원(體用一源)설' 은 바로 조동선의 '편정호회(偏正回互)' 학설의 핵심인 '오위군신(五位君臣)설'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오위군신(五位君臣)설' 은 바로 체(본질 · 理)와 용(用 · 현상, 사물 · 事)의 원융한 통일을 가리키며, '군신합도(君臣道合)설' 의 이상 경계를 실현한 것이다. 곧 '체용일원(體用一源)' 은 체용관계의 통일을 말하며, 곧 즉체즉용(即體即用)으로, 체(體)를 여읜 용(用)이 없으며, 용도 또한 체를 여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화엄에서 이사상즉(理事相卽)인 불가분의 상관관계와 같은 맥락의 논리이다.

주희가 제시한 체용일원(體用一源) 및 이일분수(理一分殊)는 일이(一理)와 만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명제이다. 사상적 근원은 화엄사상 및 선종에서 기인했다. 즉 이법계(理法界)와 사법계(事法界)를 설할 때 이(理)는 전변(全遍 · 전체), 사(事)는 분변(分遍 · 부분) 이다. 이른바 이이분수(理一分殊)는 천지간에 하나의 이(理)가 있다고 설하면서, 이(理)는 천지 만물 간에 능히 체현(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형상 혹은 물체)할 수 있으며, 곧 각각 개체인 하나하나의 사물 속에 자기만의 고유한 이(理)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이러한 관점을 태극(太极)설을 가지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가장 근본적인 이(理)는 다만 하나의 태극(太極)이며, 태극은 하나의 완정된 총체이기 때문에 분할하거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만물은 그저 태극이 분별한 총체의 체현일 뿐이다. 이른바 "각각의 사물에 하나의 태극이 있다(物物有一太極)"는 학설이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 근거는 태극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송대의 유학과 불교 발전 및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송 · 명대 유학의 기본적인 사상은 전후로 해서 형성된 장재(張載)의 기학(氣學), 정주이학(程朱理學 · 이정과 주희)과 육왕심학(陸王心學 · 육구연과 왕양명) 등 삼대 유파가 있다. 송명이학의 심성론 형성과 발전에서 이학은 각 시기의 발전과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송시기의 다양한 학술활동 또는 조정에서 다량으로 배출한 유학자들도 한몫 했다. 불교방면에서 오대 송 초 때 법안종 선사인 영명 연수의 삼교일치의 주장은 선구자적 안목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불교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일치 선정일치(禪淨一致) 및 삼교일치의 사상이다. 이후 사상계는 서로 앞을 다투어 삼교일치를 주장했다.

불교사상, 송대 이학(理學)에 큰영향
가장 근본적인 이(理)는 하나의 태극
왕양명, 불교논리와 선종 사상 융합
삼본체 · 양지본체론, 선종과도 비슷

주희가 주장한 성즉리(性卽理)와 왕양명이 주장한 심즉리(心卽理)가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 곧 "성즉리(性卽理)에서 이(理)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곧 각자의 사물이 이(理)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즉리(心卽理)에서 이(理)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람의 심중에 있다고 한다. 성즉리(性卽理)는 심(心)을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나누어서, 심(心)이 이(理)의 교량과 동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심(心)과 성(性)을 분리했다. 심즉리(心卽理)는 심(心)과 이(理)를 일체(一体)로 보았고, 곧 심(心)이 곧 성(性)이며, 동시에 심(心)은 곧 이(理)이라고 여겼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해 가는 실천적인 방법 또한 같지 않다. 성즉리(性卽理)는 "격물치지(格物致知), 궁물급리(穷物及理 · 사물을 궁극해서 이치에 이르는 것)"해서 사물에서 진리를 탐구해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심즉리(心卽理)는 사람의 본심(本心)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곧 양지(良知)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불교논리 및 선종사상을 융합한 왕양명(王陽明)의 심학의 탄생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양명의 심학은 '심' 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를 시작으로, 그는 '심' 을 최고의 본체로 승격시켜서, '심즉리(心卽理)' 를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사고의 방향은 곧 '심즉성(心卽性), 성즉리(性卽理)' 이다. 즉 성(性)으로써 심(心)과 이(理)를 소통해서, 심(心)을 지선(至善)의 성(性)으로 확정한 바탕에서, 심(心)은 곧 이(理)의 본체성(本體性)를 구비했다고 여기고, 동시에 성(性)은 지각(知覺)하는 마음에 합일할 수 있으므로, 성(性)은 지각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했다. 이것이 곧 그가 주장하는 '양지(良知 ·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天道에서 부여해준 지혜)' 설이다. 이 '양지설' 은 주희 철학에서 말하는 심리(心理)를 둘로 나누는 모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육학(陸學 · 象山學派)의 이리위심(以理爲心 · 이로써 심을 삼는다)이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왕양명의 이러한 심본체(心本體)의 사상적 체계를 구축한 것은 육조대사의 본심론(本心論)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즉 혜능은 심(心)을 염정(淨染)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반대했고, 중생심과 불심(佛心)의 합일을 강조했는데, 혜능은 중생의 본심에 불성이 있다는 착안에서, 곧 중생즉불(眾生卽佛), 불즉중생(佛卽眾生)이라는 결론을 돌출해 냈다. 곧 '번뇌즉보리, 보리즉번뇌' 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관점을 왕양명이 그대로 적용했다고 한다. 즉 유학에서는 성인을 이루고, 불교에서는 성불을 이루는 도리를 사람들의 내심에 안치한 것 등이 같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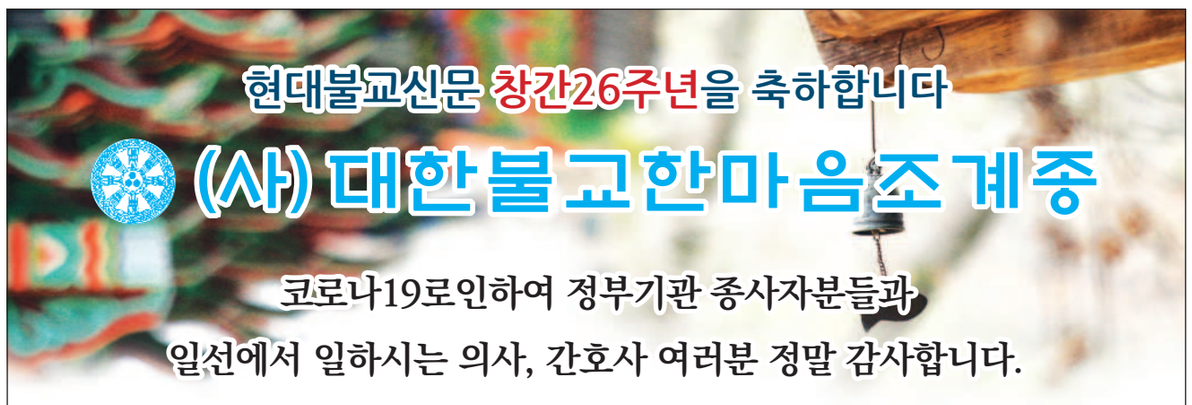
또 왕양명은 하택종의 '영지심체(靈知心體)' 론을 흡수해서 본인의 '양지본체론(良知本體論)' 의 사상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었다고도 한다. 하택이 말하는 영지심체(靈知心體)는 일종의 신령스러운 영묘지혜(靈妙智慧)를 가리킨다. 이 영지묘혜는 수연(隨緣)하면서 생기(生起)하는 만법의 능력을 갖추었고, 즉체즉용(即體即用)으로 체용일원(體用一源)의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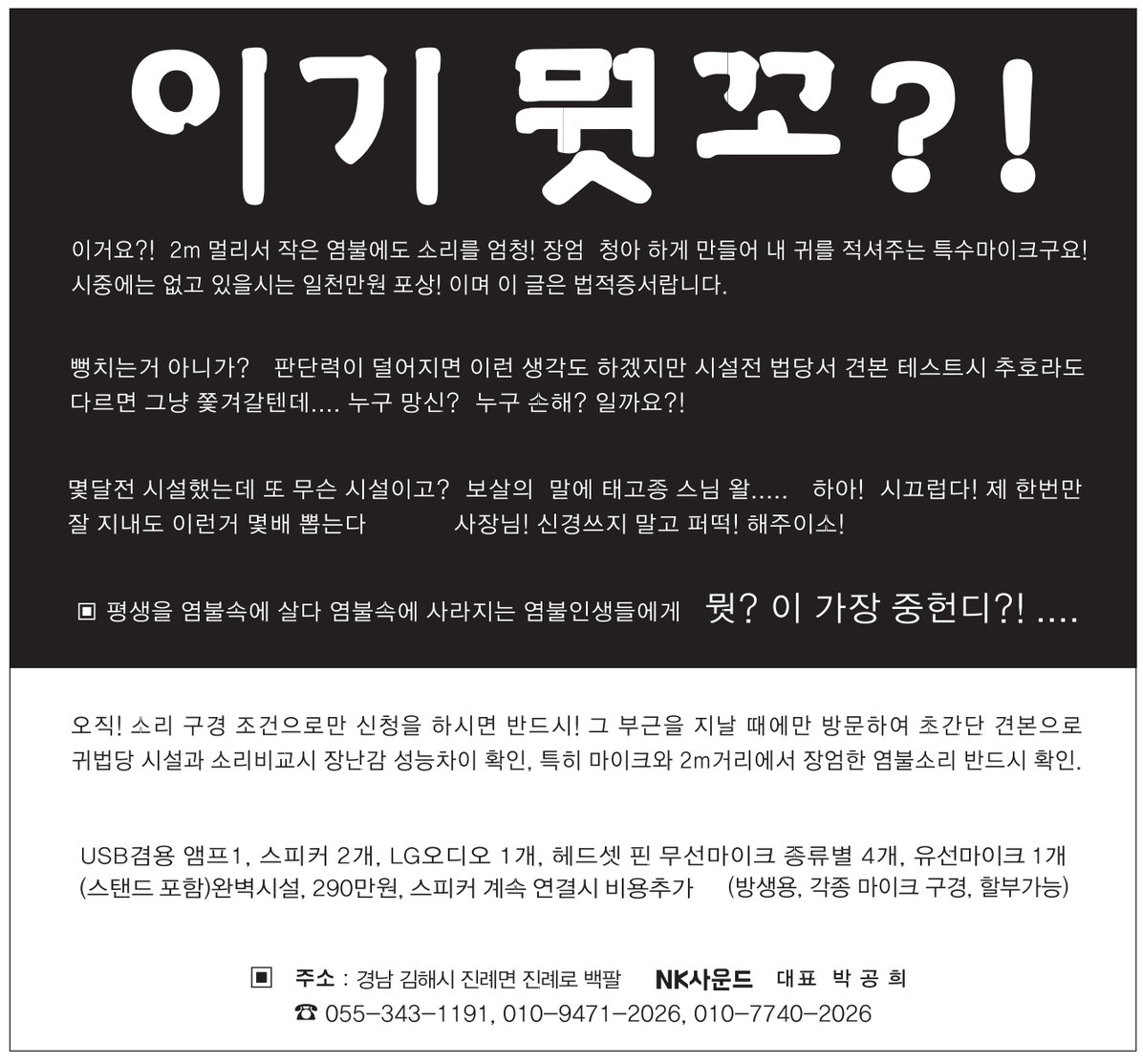
왕양명의 양지본체(良知本體)론도 또한 체용(體用)일체를 말한다. 양지(良知)는 시비(是非)의 규범이 되면서, 능히 시(是)를 알고 비(非)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같이 양지(良知)는 입법의 원칙, 행동의 원칙, 이성적 도덕적 법칙이 된다. 한편 감성적 시비 호악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 감성은 도덕적 주체의 활동에 대한 자각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점은 주희의 외재적 강제성을 띤 이본체(理本體)론 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한다. 이렇듯 본체론의 전변은 필연적으로 닦아야 할 수양 과정과 이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 수양의 공부론에 대해서 왕양명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했는데, 이 지행(知行)의 범주도 전인(前人)들과 같지 않다. 즉 지(知)는 다만 주관 형태의 지(知)를 가리키며, 지(知)를 구하는 과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행(行)은 궁행(躬行 · 몸소 실천하는 것) 밖을 제한한 것을 가리키면서 또한 심리행위를 가리킨다.

이 관점은 불교의 '일체중생개유불성' 과 매우 유사성이 있으며, 또한 선종의 돈오설과도 사뭇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혜능은 전통불교의 삼학(계정혜)을 간소화해서 정혜불이(定慧不二)를 주장했다. 반야지혜로 자심을 본체를 관조해서, 곧 '본성이 곧 부처이다(本性卽佛)' 라는 관점으로 돈오설의 출발점을 삼았다. 즉 복잡한 계급점차의 수행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성이 부처라는 직관적 수행법을 강조한 것이다.

혜능은 "본성시불성(本性是佛性 · 본성이 불성이다), 이성무별불(離性無別佛 · 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가 없다)"고 하면서,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사람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다. 다만 미오(迷悟)가 같지 않은 까닭에, 지(智)가 있고 우(愚)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본성이야말로 불성이며, 성불할 수 있는 근원의 자리라고 보았다. 때문에 미(迷)하면 중생이요, 오(悟)하면 부처라는 것이다. 즉 중생과 부처의 차별은 곧 미오지차(迷悟之差)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왕양명 역시 "심외무물(心外無物 · 마음 밖에 다른 경계가 없고), 심외무리(心外無理 · 마음 밖에 이(理)가 없다)"를 강조해서 심학(心學)사상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요지해서 사물의 진상(真相)에 도달해야 하며, 따라서 자기의 심성양지(心性良知)를 지속적으로 반조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는 고루한 전통유학의 영역을 초월해서, 대담하게도 불교사상 및 선종의 사상을 융합해서 중국 유학의 새로운 심학을 창조했으며, 후세 유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국대 강사〉





영험한 부처님 전설 깃든 아름다운 호수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⑲ 인레호수를 아시나요?



미얀마에서 두번째로 큰 호수인 인레호수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죽기 전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는 파웅도우 사원이 위치해 있다.

미얀마에 방문한다면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미얀마의 일출과 일몰이다. 태양의 빛이 하늘에 붉게 물드는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어디를 가면 미얀마의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레(Inle)'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레 지역의 일출과 일몰이 더욱 빼어난 것은 잔잔한 호수의 비친 태양의 아름다움이 더해져서 일 것이다.

인레호수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해발 약 900m의 광활하고 잔잔한 호수로 길이 22km, 폭 11km의 정말 아름다운 물빛을 갖고 있다. 인레 호수에는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따(Intha)족이 거주하고 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의 풍습과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 이들은 호숫가 위에 집을 짓고, 대나무 통발로 물고기를 채취하거나 수경재배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인레호수에서 재배된 토마토는 한 번 맛보면 바로 '인생 토마토' 가 될 만큼 맛이 매우 좋다. 인레 호숫가의 밭을 미얀마어로 쭌묘(Kyun Myaw)라고 한다. 이 쭌묘는 물에 뜨는 속성을 가진 부레옥잠이 얽혀서 육지의 밭과 같은 모양을 형성한다. 인따족들은 쭌묘에 토마토를 비롯한 채소들을 심어 먹었고, 육지의 오일장이 열리면 생선과 토마토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예전의 인따족들은 모터가 달리지 않은 배를 발로 노를 저어 다녔지만, 근래에는 모터가 달린 배를 타고 다닌다. 간혹 인따족의 전통 옷을 입고, 발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정식 어부가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다.

약 1년전 EBS 다큐멘터리팀과 함께 '위대한 유산-인레호수, 대를 이어온 전통의 삶' 을 촬영하러 갔었을 때 어업과 수경재배를 제외하고 인따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산업은 '조선업(造船業)' 이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학교를 가야할 나이에, 조선소에 가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던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조선소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해맑게 일을 하던 학생을 만났을 때 현실의 불만을 갖고 살아가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 깨달았다.

호숫가 위에 거주하는 인따족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방문하고 싶은 절 중의 하나인 '파웅도우(Phaung Daw Oo Pagoda)사원' 이 인레호수에 위치해 있다. 파웅도우 사원의 건립 전설은 바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 바간 왕조의 알라웅시뚜(Alaung Sithu)왕은 영토 순례를 하던 중 말레이반도에서 5개의 불상을 가져왔다. 5개 불상의 크기는 약 5cm정도의 작은 크기였다. 영토 순례를 마치고 바간으로 돌아 온 후 알라웅시뚜 왕은 인레호수 위의 파웅도우 사원에 모셨고 매년 불상 5개가 봉안된 날을 기념해서 파웅도우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파웅도우 사원의 불상.

미얀마 달력으로 매년 음력 9월 보름에 파웅도우 축제가 개최된다. 파웅도우 축제는 약 18일간 열리며 인레 호숫가의 위치한 약 20개의 마을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축제를 보기 위해 인사인해를 이룬다. 파웅도우 사원에 봉안된 5개의 불상 중 총 4개의 불상을 큰 황금 힌따(Hintha, 신화 속의 새로 예전 몬 왕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모양의 배에 안치한 후 18일 동안 인레 호숫가의 마을을 하루에 하나씩 방문한다. 원래는 5개의 불상이 모두 마을 순례를 다녔지만 약 40여년 전에 발생한 신기한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총 4개의 불상만 순례를 다니고 1개의 불상은 파웅도우 사원을 지킨다.

미얀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 일출 만날 수 있는곳
미얀마성지 파웅도우 사원
소원을 이뤄주는 부처님도
지극한 신심 모여 성지화

'약 40여년전 파웅도우 축제가 열렸다. 어김없이 5개의 불상이 황금 힌따선(船)에 올랐다.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황금 힌따선이 전복되었다. 5개의 불상은 배가 전복되면서 함께 호숫가 밑으로 가라 앉았고 사람들은 불상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오랜 수색 끝에 4개의 불상은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하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나머지 한 개의 불상을 찾지 못해 많이 상심한 채 4개의 불상만 다시 모시고 황금 힌따선은 파웅도우 사원으로 돌아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상 하나가 파웅도우 사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부터 스스로 파웅도우 사원으로 돌아온 1개의 불상을 제외한 4개의 불상만이 파웅도우 축제 때 마을을 순례한다.'



인레호수의 쭌묘.

이 사건 이후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파웅도우 사원의 불상들은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 영험함이 깃들어 있어 불상이 스스로 파웅도우 사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파웅도우 불상에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언급된 전설 이외에도 다른 전설이 파웅도우 사원의 불상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전 세계에 통틀어 깨달은 부처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부처가 파웅도우 사원의 5개 중 4개로 형상화되어 있다. 앞으로 한 분의 부처님이 깨달을 것인데, 파웅도우 사원의 나머지 1개의 불상이 미륵불(彌勒佛)을 상징하여 만들어졌다. 깨달은 부처 4명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 파웅도우 축제 때 황금 힌따선에 안치되어 나갈 수 있고, 미륵불로 지칭된 남은 한 개의 불상은 파웅도우 사원을 지켜야 한다. 18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원래 자리로 불상들이 돌아오는데,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얀마에 나타나시길 미얀마 사람들은 파웅도우 축제 때 기원한다.'

말레이반도에서 처음 알라웅시뚜왕이 모셔왔던 불상은 약 5cm의 작은 불상이었다. 12세기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금박보시를 통해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전보다는 거대해진 비형화의 불상이 파웅도우 사원을 지키고 있다.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과 같이 불상에 금박을 보시 할 수 있는 건 '비구스님과 남성' 뿐이다. 여자들은 불상에 금박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구스님과 남성' 의 도움을 받아야 지만 할 수 있다.

파웅도우 축제 때는 파웅도우 불상 순례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인따족은 배를 노를 젓기 위해 한쪽 다리를 사용한다. 배 경주 축제에서는 인따족 전통 그대로 '다리 노를 젓는 배 경주' 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리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배 경주를 하는 곳이다. 약 스무개의 마을에서 뽑힌 대표 배들이 누가 더 빠른 지 시합을 하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해준다. '배 경주 시합' 이외에도 불상이 모셔진 황금 힌따선을 호위하기 위한 배 위에서는 각 마을에서 뽑힌 무용수들이 파웅도우 축제를 기념하여 아름다운 춤을 보여준다.

파웅도우 축제를 보기 위해, 인레호수 근처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최소 하루에서 이틀정도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와서 축제에 참석한다. 불상이 모셔진 황금 힌따선이 지나가면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해 경외심을 표현한 채 자신들의 간절한 원(願)을 발원한다. 파웅도우 불상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얀마 사람들은 파웅도우 불상의 영험함을 마음 속 깊이 믿는다. 매년 음력 9월이 되면, 인레 호숫가의 황금 힌따선은 움직이는 파웅도우 사원이 된다. 평소 사원에 자주 왕래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파웅도우 축제는 유일하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날이다.

부처님을 일년에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친견하고 싶은 인레 호숫가 사람들의 마음이 파웅도우 사원에 전해져 파웅도우 축제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코로나19가 종식 된 후 미얀마 방문계획이 있다면, 인따족이 거주하는 인레호수는 반드시 방문 해야 한다. 아름다운 노을과 잔잔한 물결들이 출렁이는 배 위에서 파웅도우 사원을 향하는 호숫길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필자가 파웅도우 사원에서 기도했던 '미얀마 문화와 관련해서 칼럼연재 하기' 는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원 또한 파웅도우 사원의 5개의 불상에 닿아 현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양곤대 박사과정〉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 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052)251-4602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Tel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㊳ 부처님의 신통

"그대들은 부처님이 여섯 가지 신통이 있어 불가사의하다 하나니 그렇다면 일체 모든 천신이나 신선, 아수라와 힘센 귀신도 신통이 있으니 이들도 부처란 말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저 아수라들이 제석천왕과 전쟁을 하여 패배하고, 팔만 사천 권속을 거느리고 연뿌리 속 실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니 아수라도 성인인가? 내가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모두 전생의 업으로 얻은 신통(業通)이거나 어떤 조건에 의지한 신통(依通)일 뿐이니라. 무릇 부처님의 6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색(色)의 경계에 들어가도 색에 미혹되지 않고, 소리(聲)의 경계에 들어가도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맛(味)의 경계에 들어가도 맛에 미혹되지 않고, 촉감(觸)의 세계에 들어가도 촉감에 미혹되지 않고, 의식의 대상(法) 경계에 들어가도 의식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진이 모두 실체가 없어 비어 있는 모습(空相)인 것을 통달하였느니라.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얽어맬 수 없는 것이니라. 비록 오온의 몸에 번뇌가 있으나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바로 신통(地行神通)이니라."

선(禪)을 자기 주체 확립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견성(見性)을 자기 정체 파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장에 와서 임제는 신통의 이야기를 꺼내 수행의 완성이 신통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른바 육신통(六神通)을 발휘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라 한다. 신통이란 보통의 상식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다. 초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비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깨달음 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물론 석가모니부처님도 신통력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다. '천불화현'이라는 기적을 보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다. 슈라바스티의 많은 사람들과 외도들 앞에서 몸이 공중으로 솟아 걷기도 하고 앉고 눕기도 하다가 입에서 불을 토하고 항문에서 물을 뿜어냈다고 한다. 또 망고의 씨를 땅에 떨어트려 이내 싹이 나자라 큰 나무가 되어 천 개의 꽃이 피었는데 그 속에서 부처님이 화현했다 하고, 천 개의 꽃잎이 달린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당에서 솟아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설화는 〈근본설일체유부비야나잡사〉와 자타카, 법구경주석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근처에 천불화현터라는 유적지가 있어 큰 벽돌 더미의 탑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생모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을 했다 한다. 그 내용이 〈지장경〉이다.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 설법을 했다는 이야기도 〈화엄경〉이나 〈범망경〉 등 여러 대승경전에 나오는데 이는 법신의 작용인 선정의식의 경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신통은 외도들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부처는 신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禪)은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 따위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육진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바깥 경계가 공(空)한 것을 통달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아수라가 제석천에 패해 연뿌리 속 실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다는 말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의 방온(龐蘊)거사가 남긴 유명한 송구가 있다.

日用事無別 일상의 생활이 별것 없다네 / 唯吾自偶諧 오직 내 스스로 어울리면 되는 것 / 頭頭非取捨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이고 / 處處勿張乖 여기나 저기나 틀어지지 않을 뿐

朱紫誰爲號 누가 벼슬 높다고 귀하다 하는가 / 丘山絶點埃 언덕이나 산이나 티끌경계 아니라네 / 神通竝妙用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여 / 運水及搬柴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 오는 것이라네

마지막 구절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오는 것이 임제의 지행신통(地行神通)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온(五蘊)은 無我"



세상 속 경전읽기

㊳ 무아상경(無我相經)

붓다께서 5비구에게 〈전법륜경〉을 처음 설하신 후, 두 번째로 설한 경은 〈무아상경(無我相經, Anattalakkhaṇa Sutta, SN 22.59)〉, 또는 〈오비구경(五比丘經, 잡아함경 권2 34번)〉이라 불린다. 이 경은 한 마디로 오온[五蘊,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하므로 고(苦)에 이르게 되고, 이 무상, 고, 무아를 확실히 깨달아 고멸[苦滅, 해탈(解脫), 열반(涅槃)]에 이르게 됨을 설한 것이다. 설법장소는 〈전법륜경〉과 같이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예언자의 숲) 녹야원이고, 설법 대상 역시 같은 5비구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오온[색수상행식]은 무아[無我]이다. 만약 오온이 나[我]라면, 이 오온은 고통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이 오온을 주재(主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온은 무아(無我)이므로 고통에 이르고, 누구도 오온을 주재(主宰)할 수 없다. 오온은 무상하여 고통이고, 무상하여 고통인 오온은, '내 것(mine), 나(I),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길 수 없고, 오온은 '내 것(mine), 나(I), 내 자신(my self)이 아니다'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알면, 오온에 대해 소원(疏遠)해지고[염오(厭惡)를 느끼고], 열정이 시들고, 해탈(解脫)하고, 해탈지견(解脫知見)이 생긴다. 따라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범행(梵行)을 완성했으며, 대장부의 할 일을 마쳤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밝게 알게 된다.

"비구들아, 몸[色, form](과 수상행식)은 무아[無我, not-self]이다. 만약 몸(과 수상행식)이 나[我, self]라면, 이 몸(과 수상행식)은 고통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이 몸(과 수상행식)에게 '내 몸아!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되지 말거라'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몸은 무아(無我)이므로 고통에 이르고, 누구도 '내 몸아!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되지 말거라'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

(세존) 비구들아, 네 뜻(생각)에 어떠하냐. 몸[色, form]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5비구) 일시적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은 고통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5비구)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 고통인 것을, '이것은 내 것(mine)이다, 이것은 나(I)이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5비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느낌[感受作用, 受 feeling], 표상작용[表象作用, 想 perception], 의지작용[意志作用, 行, determinations], 인식작용[識, consciousness]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5비구;) 일시적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은 고통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5비구)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 고통인 것을, '이것은 내 것(mine)이다, 이것은 나(I)이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5비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따라서 비구들아! 과거, 미래 또는 현재에 생겨난 어떠한 몸[色, form](과 수상행식)이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열등하든 우수하든, 멀든 가깝든,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것은 내 것(mine)이 아니다, 이것은 나(I)가 아니다, 이것은 내 자신(my self)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비구들아, (진리의) 설법을 들은 제자가 이와 같이 알면, 그는 오온에 대해 소원해진다. 소원해지면, 열정이 시들고, 열정이 시들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졌다는 앎이 생긴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남[生, birth]이 없고, 성스러운 삶을 완성했으며, 대장부의 일을 마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밝게 안다."

〈The Not-self Characteristic (Anatta-lakkhana-sutta SN 22.59) translated by Ñanamoli Thera〉에서 경주 번역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닦음의 길 24

공양도 수행이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고 있는 인사말이다. 몇 해 전에는 모 방송국에서 '식사하셨어요?'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큰 일이었던 배고픈 시절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 말 대신 '공양은 하셨습니까?'라는 독특한 표현을 쓴다.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공양(供養)이란 밥 먹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중들이 모여서 발우(鉢盂)에 음식을 담아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대중공양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안거 때 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밥을 먹는 것을 과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양이란 본래 누군가에게 음식이나 옷, 약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布施)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공양의 대상은 붓다와 가르침, 승가 삼보(三寶)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붓다에게 바치는 공양을 불공(佛供), 불법(佛法)에 공양하는 것을 법공(法供), 승가의 주요 구성원인 승려에게 바치는 것을 승공(僧供)이라고 한다. 이렇게 삼보에 공양을 하는 것을 불자들은 공덕을 쌓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공덕으로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양의 전통은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의 탁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출가한 사문들은 걸식을 통해 식생활을 해결하였는데, 이를 제공한 이들은 주로 재가불자였다. 사문들에게 걸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깨침을 향한 수행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몇 가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하루에 한 번 오전에만 탁발을 해야 하며, 일곱 집 이상을 다니면 안 되었다. 또한 탁발하는 집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공양 받는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가려서도 안 된다. 그저 주는 대로 먹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탁발은 하심(下心), 즉 아상(我相)을 내려놓는 매우 효과적인 수행이었다.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우쭐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한편 사찰이 생기고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양의 대상도 수행자 개인에서 대중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우리가 사찰에서 먹는 음식은 누군가 정성껏 보시한 공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먹을 것을 보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인연들로 이어진다. 밥을 먹기 전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공양게(供養偈)를 합송하는 이유다.

음식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수행이 되기도 하고 배고픈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태양과 구름, 비, 바람과 같은 대자연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를 길러낸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입맛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상을 인식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수행이다. 사찰에서 음식 남기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도 공양 자체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살기 위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밥 한 톨도 남기지 않는 불교의 공양 문화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발우에 담긴 음식을 깨끗하게 비운 후에는 대중들이 합장을 하고 "이르는 곳마다 부처님의 도량이 되고 베푼 이와 수고한 모든 이들이 보살도를 닦아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라고 합송을 한다. 공양게에는 대중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이들이 열심히 정진하여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공양하는 장소가 집이든 식당이든 관계없이 그곳이 바로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도량이 될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Tel 055)282-7402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055)337-0101~5

우울에 맞서는 법 '감정 전환'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2〉 우울감정의 전환



우울과 신체

우울증의 주요 증상에서 본 것처럼 우울증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에 빠지면 식습관, 수면, 활력 수준에 문제가 생긴다.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너무 많이 먹어 체중이 급격히 불기도 한다. 수면 사이클이 깨져 하루 종일 기운이 없거나 너무 많이 자는 수도 있다. 잠을 자도 충분히 잤다는 느낌이 안든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 다시 잠들지 못한다. 앞의 앨리스처럼 특정 사건을 곱씹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기도 한다.

우울할 때 겪는 신체변화는 자신에 관한 느낌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변화로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이라는 오랜 테마가 고개를 들면서, 가볍고 일시적인 신체변화만으로도 이미 나쁜 기분이 더 나빠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우울로 힘들어 하는 사람 중 80퍼센트가 원인모를 신체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이것은 우울에 따르는 피로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부정적인 것에 부딪히면 긴장한다. 인간은 진화를 거치며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대처하는 신체를 물려받았다. 호랑이를 만나면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숨거나 도망친다. 혈액이 피부와 소화관에서 손발근육으로 이동한다.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준비과정으로 손발근육이 긴장한다. 그런데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는 호랑이 등의 외부 위협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기억 같은 내부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 부정적 사고와 이미지라는 내부 위협이 일어나도 몸은 긴장한다. 얼굴을 찌푸리고 위장이 뒤틀린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허리가 긴장한다. 위협대상과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부정적 사고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 신체는 자신이 위협을 받아 불안하다는 정보를 마음에 다시 피드백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몸 상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어느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만화를 본 뒤 얼마나 재미있는지 평가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연필을 이빨에 물고 만화를 봤다.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을 사용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웃음을 짓지 못하게 입술을 오므려 연필을 물고 만화를 보았다. 그 결과, 웃음 근육을 사용한 사람이 만화가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연구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찡그리는 근육을 사용해 만화를 보게 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은 만화가 재미없다고 평가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는 사람들에게 특정 정보를 주며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거리게 했다. 이런 신체동작이 정보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경우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 실험들은 불행감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 주변 상황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해석을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신체와 감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몸이 민감한 '감정 탐지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몸은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상태를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을 무시하는 법만 배웠지 배움과 성장, 치유 차원에서 자신의 몸에 관심 갖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우울로 힘이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한다. 몸이 보내는 긴장과 소진, 혼란의 신호를 무시한다. 우울이라는 내면의 난기류가 몸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저절로 가라앉기만을 기다린다.

신체의 통증과 긴장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면 몸과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더 위축된다. 몸이 굼뜨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제 우울은 삶의 네 번째 영역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과 행동

어렸을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비참한 기분이 들면 견디거나 이겨내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이 말에 나쁜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럽고 나약한 행동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내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여길거라고 생각한다.

> **우울은 신체 능력 저하 유발**
> **부정적 사고로 긴장 강화돼**
> **신체반응 회피시 행동에 영향**
> **감정반응 관조해 전환 이뤄야**

우울에 따라오는 핵심 테마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이다. 이 생각은 어떤 상황에도 무한정 옮겨 붙는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 겪는 스트레스와 곤란이 모두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도 나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역시 나의 책임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결과 완전히 탈진하고 만다.

우울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더 쉽게 처진다. 그 이유는 기분이 처질 때마다 생각과 느낌, 신체감각, 행동 사이에 더 강한 연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들 요소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우울증이 촉발되기에 이른다.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잠시만 스쳐도 어마어마한 피로감이 밀려온다.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산사태를 이룬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이 더 커진다. 사소한 사건과 기분 변화로 감정의 하강 소용돌이가 만들어 진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우울이 악화되지 않게 하거나 호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생각을 통제하거나 안 좋은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시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불행감이라는 정상적이고 이해할 만한 감정이 우울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기분을 바꾸는데 무력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 기분을 바꾸려는 용기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울의 덫에 걸리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들어가며'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지금과 완전히 다른 관점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관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와 경험의 영역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마음의 깊은 자원에 접속할 수 있다.

알아차림의 치유력

자꾸 우울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기분이 안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의 소용돌이에 빨려든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빠져든다. 기분이 안좋은 것으로 자기를 비난하면 기분은 더 나빠진다. 이때는 특정한 마음 패턴 또는 마음 모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마음 모드는 불쾌한 감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때 작동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또는 마음모드는 무엇일까? 이를 알려면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 우울한 기분에 맞서 싸울 때 오히려 우울의 나락에 더 빠져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이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우울의 덫에 가두는 주범이 마음의 특정 모드임을 알면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과 다른 마음 모드로 갈아탈 수 있다. 우울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 모드를 갈아타는 연습을 하면 우울과 맺는 관계가 변화해 마침내 우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감정의 역할

기본적으로 감정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다. 감정은 자기보존과 안전, 개체와 종의 생존이라는 기본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호로 진화해왔다. 인간의 감정 레퍼토리는 매우 정교하며 내면적 · 외면적 감정 표현도 아주 풍부하고 복잡하다. 그렇지만 행복, 슬픔, 공포, 혐오, 분노 등의 몇가지 기본 감정은 따로 느낄 수도 있다.

각각의 감정은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공포는 위험이 닥쳤을 때,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혐오감은 불쾌한 대상에 맞닥뜨렸을 때 일어난다. 분노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행복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일어난다. 감정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감정은 생존과 번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반응은 대개 일시적인 것에 그치도록 진화해 왔다. 다시 말해 감정은 일어난 뒤 사라져야 한다. 다음 경보를 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의 감정 반응은 원인이 되는 경보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지속되어야 한다. 몇분은 커녕 몇초 동안만 지속될 수도 있다. 특정 감정 반응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둔감해 진다.

물론 어떤 상황은 꽤 오래 계속되며 그에 대한 감정 반응도 그만큼 오래 지속된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몇주 몇 달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집어 삼킨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졌다.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다시 웃는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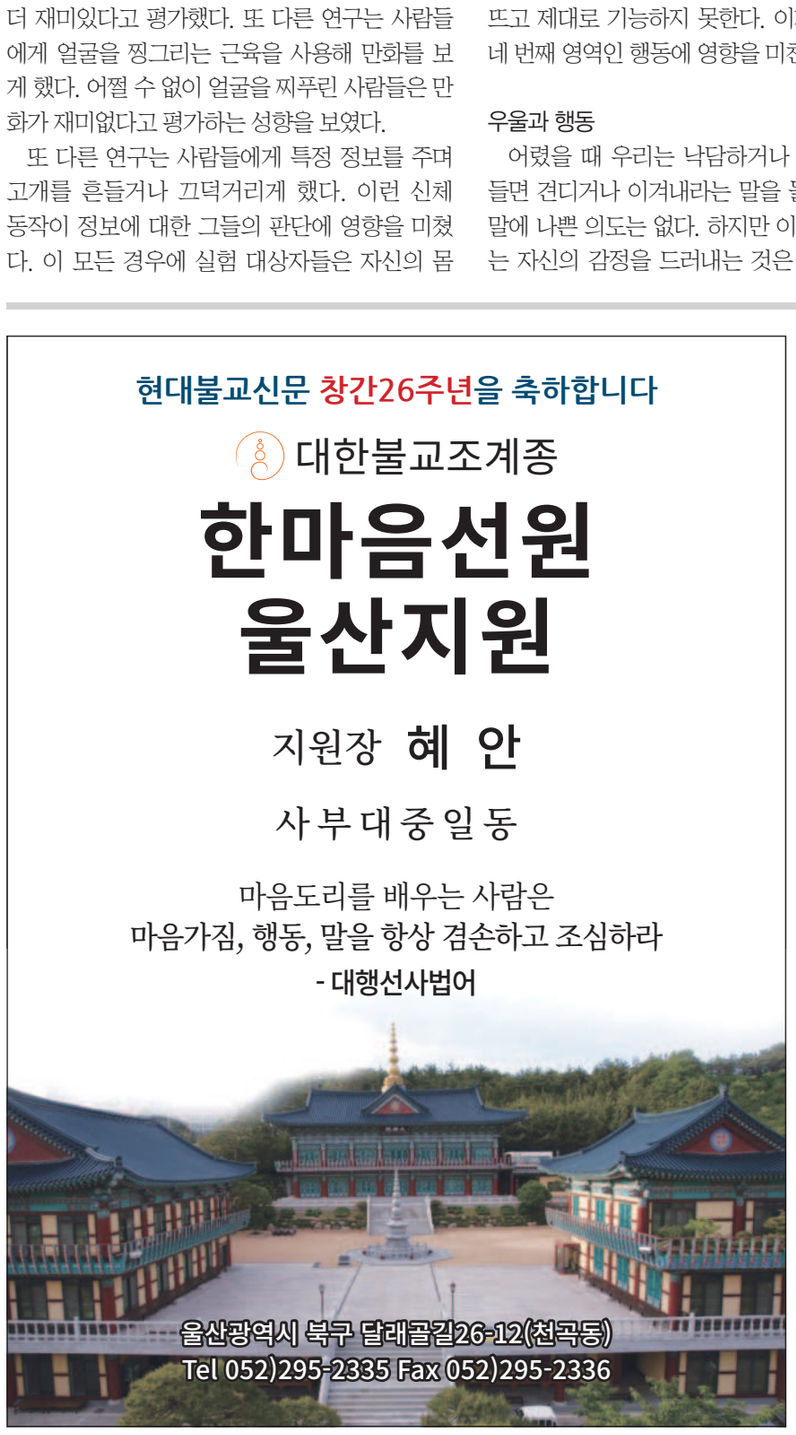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마음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가짐, 행동, 말을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라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0년 10월29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바라무 및 착복무
  3. 수륙대 의식 (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철학박사 –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8419

사)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 명 합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2호 | 15 | 전면광고

음식이나 진귀한 보석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은의광경》에서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 백연사 운송도암
010-9208- 3835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010-7307-1727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P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중구
010-8721-2198

여(女) 사무 보조원 구함
50대 PC가능자
010-9087-6287

기도 부전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010-2078-9595

인연을 찾습니다.
크고 작은 도량에서 지낸 경륜스님 적은보시금으로 인연처요 경상도
010-7756-5525

★마이크 목걸이★

스님께서 염불 독경하실때 편리합니다.
판매가격 : 4만원
농협 351-1102-1539-63 대월사



연락처 : 010-3942-2750

기도의 신

특수기도법을 정통으로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사부대중, 행자모집중)
문의 : 054-753-822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봅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 어떠한 질병도 물리치는 여래의 대약수인 해인과 감로는 무엇이며, 수행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50위의 수행차제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여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화엄의 비법은 무엇인가?



문의 :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010-9150-104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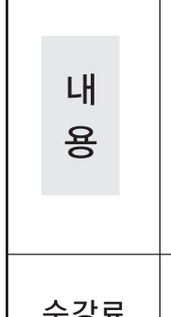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2호 | 16 | 전면광고

믿음은 보시가 되어 나타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며, 믿음은 능히 여래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010-5758-7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 4-1 토굴 양도(임대)합니다.
- 방문후 임대, 가격조정가함.
- 법당,산신각,요사채,창고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년20만원

010-5714-7872

정말 좋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857-281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010-2727-6899, 02-488-01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해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010-2949-3688

토굴(급)안내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4270-3397

포 교 당 급 매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010-8809-9979
010-2804-844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진보면 소재지
- 부지 : 총607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 법당25평, 요사30평(판넬 조립식)
- 가액 : 1억 3천만원
- 법회즉시 가능 주차시설완비

010-9504-7259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2층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
- 시골집 토굴처럼 기도하던곳
- 시설일체 두고떠남
- 월세 10만원

010-3221-0839

오래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010-3535-7906

◆◆◆
서울·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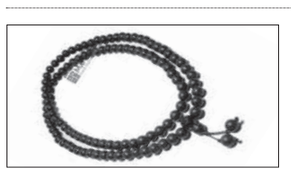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날씨는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쳇바퀴 돌듯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집착하여 물질 50%만 넣고 굴리려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먹어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 뭐가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내 몸도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모두 회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살아나가다가 어떠한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합시다.

부처님 말씀과 다른가 안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나오고, 병고가 술술 풀려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만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뭘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 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네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 도 아니고 '했다' 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 무심(無心)에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무심이기 때문에, 들여놓은 것도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을 많이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영은 영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하냐? 그것은 체가 없어서, 만물을 목신 한 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내 마음이 한데 한 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두 신중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 위패를 붙여 놓고 하는 그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위패는 치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이죠. 어언간에 수만 번을 들어서 흘러져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감응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침착하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생전에 마음으로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 굴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냥 해 버리는 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아주 적중해서 현실로 나오는 무서운 도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 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참,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 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 하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 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애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딨습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의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죠.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 18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약 천 사
주지 덕 조
신도회일동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대포동)
Tel 064)738-5000 Fax 064)738-5022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창종 제8주년기념 대법회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을 하나 똥을 누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한데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앉을 때는 앉아서 생각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에다 다시 맡겨 놔야만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죽도록 매를 맞게 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이 별의별 우환이 다 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지 '나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主人空)!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딨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無心)의 중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해 두고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男) 큰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제 안으로도 밖으로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그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은 본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그런다면 그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그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이 모양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큰스님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 의식, 모습 다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을 따라 줍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거를 못 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저런 별성도 이 거죽만 벗습니다.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옷만 벗지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 없이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몸을 받아서 또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 한데 합쳐져야, 삼합이 합쳐져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걸 먹고 삽니다. 살아나가는 데도 수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죽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물로 돌아가서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윤회라는 건 이름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고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질문자1(男) 스님, 제가 지금 살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다시 배낭 속에 맡겨 놔야만이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큰스님 그럼 말입니다, 댁의 이름을 몇 개를 가졌죠? 몇 개를 가졌습니까?

질문자1(男) 그냥 저죠.

큰스님 형님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동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질문자1(男) 예, 물론입니다.

큰스님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질문자1(男) 제가 지금 살아 있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또는 생각하고 제 본래 주인공 마음에다가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가 살아 있기 때문인데,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 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많이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스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이고 알면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의정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無心道)를 이렇게 생활로써 엮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니,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의 법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아, 윤회라고 말할 건덕지가 뭐 있나?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질문자2(男) 큰스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니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락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예전부터 믿어 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느낄 순 없지마는 주인공을 찾을 때 큰스님께서는 관(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주인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觀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태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묻는다면 어떡해. 허허허.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 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거고, 내쉬고 들이쉴 수 있다면 살 겁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그냥 그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 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

질문자2(男)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관할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큰스님 허허,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 허허허.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쉬라 이 소리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허허, 시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질문자2(男)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도 거기서야.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 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야, 하루 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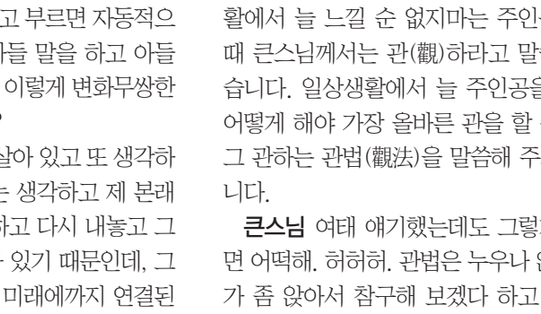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침향 향기나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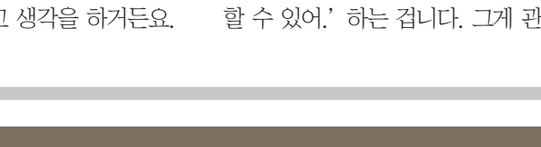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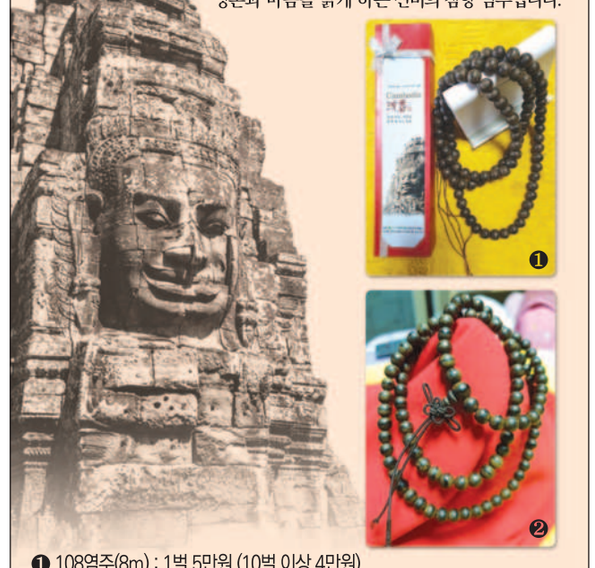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천상의 향기 캄보디아 침향 沈香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침향 염주입니다.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한국 보급처 함안 용화사

소납은 캄보디아 프놈펜 향불사 국제 NGO 자비의 등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 청소년 교육사업과 가난하여 치료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진료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제반 후원에 소요되는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자급자족 하고자 캄보디아 산 침향 나무를 입찰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108 염주를 만들어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향기, 천상의 향기라고까지 하는 침향 염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서불안, 초조, 기도나 화두에 마장이 따를 때 그 향을 맡으면 바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침향입니다.

- 보급처:캄보디아 향불사 / 구입처:함안 용화사 향불원 -

구입문의 : 010-2033-6636 / 055)584-0998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깨어있다는 것

명상은 습관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본성인 깨어있음과 익숙해지는 겁니다. 습관적인 생각은 대체로 불친절하고 거칠고 판단과 의견이 심하고 과하고 집착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이처럼 울고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지고 큰일을 만듭니다.

습관적인 생각은 아집, 즉 탐 · 진 · 치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군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고통의 정확한 뜻입니다. 반면에 깨어있음은 판단하지 않고 유연하고 받아들이고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내맡기는 마음입니다. 애씀 없이 쉬는 마음입니다. 허공처럼 순수하고 태양처럼 빛나요.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혜이며 표현은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나입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⑲ 부탄–도출라 고개

히말라야가 허락한 靈峯, 눈에 담다

하교길의 아이들을 보며 순례단 지도법사 설정 스님께서 뭐라도 좀 사 먹이고 싶다고 하셨다. 아이들을 자애하는 자비덕화도 있지만 당신도 동진 출가자여서 짠한 마음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동자승이 많은 치미 라캉 사원 입구의 작은 가게에서 아침 등굣길의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 주기로 하였다.

마침 부탄 전통복장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손에는 도시락을 든 채 학교에 가려한다. 모두들 불러 모아 과자며 사탕을 나눠 주었다.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줄을 쭉 늘어선 채 초롱한 눈빛으로 함께한다. 그 아이들의 싱그러운 재잘거림과 눈망울과 미소에 마치 천국을 본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설정 스님께서 제일 신이 나셔서 너털웃음을 지으며 행복해 했다. 목에 10개짜리 과자를 탄피처럼 두르고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 포대화상이 다시 오신 듯한 모습이다.

특히 파란 보리밭에서 만난 남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은 그 어린 아이의 티 없는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기만 하다. 두 손을 꼬옥 움켜잡고 학교 가는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하염없이 쳐다보게 된다.

드디어 동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치미 라캉 사원에 다다랐다. 사원을 참배하고는 동자승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니 모두들 환호성을 지른다. 모처럼의 별식인지라 승복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참 맛있게도 먹는다. '아이들 목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다' 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자승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숙소며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 등을 둘러봤다. 그리고는 이들을 위해 숙소나 목욕탕을 새로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사를 후원하기로 했다. 문득 동자승들을 보며 정현종 님의 '방문객' 이란 시가 떠올랐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중략〉/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치미 라캉 사원 · 도출라 고개서
히말라야 상서로운 봉우리 친견
동자승들에게 과자 보시 즐거워

이들이 멋진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이 서원을 사원 앞의 흰 룽다천을 흔드는 바람결에 순백의 설산과 허공에 띄워 보낸다.

사원을 나와 어제 오던 길을 거슬러 다시금 도출라 고개로 향한다. 또 다시 히말라야 설산을 보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우리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마치 불보살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라 절로 찬탄과 환희에 젖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다.



도출라 고개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영봉.

언덕 위 전망대가 있는 곳에 부탄 절이 하나 있어 계단을 오른다. 사원 입구의 비천상이 단연 압권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천녀상이 부탄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 사람의 모습을 한 불보살과 천녀상이 더욱 정겹고 아름다워 현지인의 경외와 찬탄을 받는 까닭이다.

전망대에 올라 순백의 히말라야 설산을 조망하니 호연지기가 생기는 느낌이다. 당대 왕지환의 '등관작루' 에서 "천리에 이르는 경치를 조망코자 할진댄, 다시 한층 누각을 더 오르거라"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지도법사 설정 스님께서는 사사로이는 필자의 사숙이 되신다. 그런 까닭에 이 기회에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팀푸 못 미쳐 심토카종에 들렀다. 1629년 샵드롱 나왕 남갈에 의해 세워진 부탄 전역의 최초의 종(요새사원)이다. 이후 티베트와의 100년에 걸친 전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규모는 작지만 역사적 의미는 가장 큰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팀푸를 지나 해발 2400m의 파로공항이 있는 인근의 파로종으로 향한다. 공항 근처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파로공항의 모습이 장관이다. 험난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 갑자기 급하강해 이곳 공항에 착륙하는데, 부탄에서 흔치않은 넓은 평지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파로는 고대부터 외부와의 통로 역할을 해왔고, 약 백 년에 걸친 티베트의 공격대상이었기에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외부와의 단절을 끝내고 개방의 활로 역할을 한 곳도 역시 파로이다.

파로종은 좌로는 파로공항과 우로는 멋지고 풍요로운 평야와 저 멀리 설산을 품은 곳에 자리한다. 앞으로 강이 해자 역할을 하고 뒤에는 험준한 산이 자리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이자 천혜의 요새이다. 강 건너에서 바라보면 더욱 장엄하고 아름다운지라 절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절경이 아닐 수 없다.

파로종 근처의 도시에 숙소를 잡고는 시내구경과 선물도 구입하면서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겼다. 현지인의 삶과 모습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여행의 진정한 매력이자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내일은 드디어 부탄불교 최고의 성지이자 상징과도 같은 탁상 사원을 참배할 것이다.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와 세웠다는 절벽 위의 그림 같은 곳이다. 3~4시간의 힘겨운 산행을 하여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오늘 밤은 내일 날씨가 좋기를 기원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밤새 꿈속에서라도 탁상 사원과 파드마 삼바바 꿈을 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국제불교지도협회 중생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熱과 誠을 다해 수행 했습니다

수행과 봉사는 저희들의 다짐이고 실천 덕목입니다

40여년의 결실 중의 하나

현실에 끌려 다니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자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과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국내 외 지구촌 곳곳의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40여년의 세월들

한국과 미얀마 우호적인 민간 교류를 선도하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어려운 환경의 극빈 소년들에게 직업 기술을 무료로 가르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미얀마 양곤에 코리아 기술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코리아 기술대학교 개원 모습 (미얀마 양곤 흘라잉따야 위치)

人生에, 歲月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자

수행자는, 출가자는 영혼이 자유로 와야 한다.
이제 먹물 옷에 취하지 않고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불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일까?

들꽃이 생명력이 강하듯 시련과 풍파를 많이 겪으면 더더욱 강해진다.

바른 법에서 벗어나면 마음 또한 더러워진다.
깨끗하고 더러움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늘 행운이 따른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망각하지마라.
그리고 항상 참회하며 살아야한다.

삶을 세월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장수와 행복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행복은 도전에 직면해서 온몸으로 그 도전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온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시하는 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죽은 거나 진배없다.

真正的人生的幸福是什么呢?
真正的人生的幸福是什么呢?

野花富有生命力和风浪考验, 更多更强的话。

正确的方法中摆脱出来, 心也会脏
干净自己的心灵污垢, 取决于
像人一样活着的人来说, 总是伴随着幸运
自己不要遗忘或
此外, 生活总是要

人生在世的观点, 仅在看不到长寿和幸福是不可分割的关系。
幸福面临挑战, 面对这个挑战, 并承担风险的。
你真正的目的而冒险的决心, 要么你死了没有什么两样。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시상식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법성 ·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법성,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김경실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세계붓다 평화 봉사상 시상식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봉행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